

[論 文]

日本金屬工藝에 보이는 韓國古代文化의 影響

鄭 明 鎬
(東國大學校)

〈目 次〉

- | | |
|----------------|---------------------|
| I. 序 言 | 1) 韓國銅鐸의 특징 |
| II. 日本體鳴具의 發達 | 2) 韓國梵鍾의 특징 |
| 1) 靑銅器 수용의 배경 | IV. 日本文化에 보이는 韓國的要素 |
| 2) 日本銅鐸의 특징 | V. 結 論 |
| 3) 日本梵鍾의 특징 | |
| III. 韓國體鳴具의 發達 | |

I. 序 言

韓國과 日本은 地政學上으로 東北亞細亞地域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이 두나라는 東海(日本海)를 사이에 두고 선사시대부터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 즉 文化를 비롯하여 政治 經濟面에 이르기 까지 매우 빈번한 관계를 맺고 발전하여 왔다고 하겠다.

이와같은 사실은 文獻資料를 비롯하여 遺物 및 산업資料중에서 주목되는 同質要素를 두나라에서 찾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두나라 사이에서 찾아 볼 수 있다는 實證學的인 造形美術資料는 考古學的인 규명에 의해 밝혀진바 있다. 특히 美術工藝資料중에 韓國의 독특한 문화적요소가 日本先史時代以來에 출현되고 있는 遺物·遺蹟에서 그 證據資料를 얻을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日本傳統文化속에 뿌리박힌 韓國文化的要素가 어떠한 종류에 어떻게 발전되었으며 어떠한 문화적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 보고자 한다. 이 곳에서는 두 나라사이에 이룩된 文化的要素중에 金屬工藝分野, 特히 鳴器인 鐘類와 鐸器를 中心으로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II. 日本體鳴具의 發達

1) 靑銅器 수용의 배경

韓國과 日本은 地政學的인 관계로 선사시대부터 일찌기 문화교류를 맺고 發展하였다는 事實은 考古學的인 學術調査結果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이와같은 증거가 氣候條件으로 부터 또는 두나라 사이의 지정학적인 관계로 미루어 볼때 陸續되어 있었던 時期가 있었음을 考古學以外에 地層學的 또는 植物 및 生物學的인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점차 밝혀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주목되는 사실은 40餘年前까지만 하더라도 선사시대는 물론 신석기시대까지에 해당되는 文化交流資料를 찾지 못하였다. 그러나 근년에 들어서면서 획기적인 자료가 밝혀지게 되므로서 韓日關係에 대하여 좀더 명료하게 파악할수 있게 되었다. 즉 서울 江東區 岩寺洞과 釜山 影島區 東三洞에서 발견되고 있는 幾何學무늬의 질그릇계통의 工藝品이 韓國과 먼한 日本 九州 北部地域의 繩文時代 早期層 밑에서 類似한 자료가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九州地方의 佐賀縣 西松浦郡 西有田의 盜人岩洞穴遺跡의 第四A層下部와 第四B層下部에서 櫛目文질그릇이 발견되었다. 이 櫛目文질그릇의 무늬가 우리나라의 幾何學무늬인 櫛目文질그릇資料와 類似하다는 사실이다.

또한 蠡式질그릇을 거쳐 前期의 曾畑式질그릇과 形式的으로 變化된 押型文질그릇은 佐賀縣 伊萬里市 東山代町의 白蛇山 岩陰遺跡에서 發見되었던 것으로 이는 東三洞을 위시하여 남한 남부 지방에서 出土되는 것과 類似하다. 이 질그릇자료 외에 주목되는 것으로는 東三洞貝塚에서 발견된 貝製의 裝身貝인 腕輪資料와 類似한 공예자료가 長崎縣 佐世保市 下本山町의 岩陰遺跡에서 出土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繩文時代 중기에 該當되는 질그릇資料가 出土되는 佐賀縣 西松浦郡 西有田町 언덕아래 유적에서 阿高式질그릇 系統의 질그릇口緣部로 보이는 顔面손잡이가 발견된바 있다. 또한 長崎市 深堀遺跡에서 後期初頭의 北久根山式에 該當되는 資料로서 粘土紐를 두가닥을 합한 橋狀손잡이가 出土되었다. 이 두가지 종류의 손잡이인 顔面손잡이와 粘土紐를 두가닥을 합한 橋狀손잡이와 類似한 것이 日本반대편인 東三洞貝塚에서도 發見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바가 있다.¹⁾

이와 같이 韓國의 文化的要素가 日本地域에 있어서도 그대로 또한 간헐적으로 보이는 동시에 반대로 日本的인 要因인 繩文式土器와 類似한 것이 東三洞貝塚에서 보인다는 점을 참작할때 相互間에 文化要素를 주고 받는 文化交流가 있었음을 밝혀주는 좋은 증거가 될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繩文晩期段階에 들어 서게 되면서 基本的인 經濟部門뿐만 아니라 生産性部門에 이르기 까지 즉 原始農耕의 耕作技術까지 傳播된 資料가 들어나고 있다.

1) 西谷正, 『先史時代の日本と朝鮮』, pp.14~21

韓國과 日本사이에 共通된 類似한 要素가 特히 九州地方에 있어서 農耕과 關係되는 資料가 많은 遺跡에서 發見되는 것으로 미루어 九州地方으로 부터 韓國의 새로운 農業을 위한 보다많은 技術이 要求되었을 것이다. 또한 農耕術과 더불어 宗教的인 儀式具의 새로운 모습의 것도 要求되었을 것이다.

韓國의 無文질그릇時代에 들어서면서 農業關係資料가 더 많이 發見되는 동시에 金屬資料인 靑銅器資料가 無文질그릇과 함께 무덤터에서 發見되고 있는데 이 靑銅資料는 生産性を 위한 宗教的인 儀式要素가 다분히 내포되고 있음을 찾아 볼 수 있다.

농경산업의 生産性を 增進시키기 위한 宗教的 儀式具가 存在하였던 韓國의 無文의 질그릇時代에 보이는 곡류(穀類)중에 모(稻)種이 보이는 속에 農業生産道具로 널리 알려져 있는 石器중에서 半月形石刀나 金屈器 그리고 宗教儀具와 더불어 生活用具는 生活상에 技術革新을 이루게 하였던 要素라 하겠다. 이와 같은 要素는 彌生式질그릇 文化를 갖게된 日本文化를 일으키는데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즉 韓國文化가 本格的으로 日本으로 移殖하거나 傳播하게 된것은 앞서 말한바와 같이 繩文질그릇文化의 晩期和 初期彌生文化期에 나타나는 資料에서 충분히 밝혀지고 있다. 彌生時期에 韓國的 要素가 日本으로 移殖되고 傳播되었다는 要素는 대체로 産業性和 生産성을 위한 기본적인 要素로서 稻作文化를 基盤으로 한 農耕道具와 生産을 위한 宗教儀式具가 出現되고 있다는 事實이다. 이와같이 일본 여러 지역에서 한국문화적 요소가 내포되고 있는 초기농경문화인 이 水稻農耕資料가 소개되고 있는 곳으로는 특히 北九州地域인 唐津灣과 博多灣 그리고 遠賀川流域一帶로 부터 밝혀지고 있다는 事實이다.

이들자료는 韓國의 慶尙南道 金海郡에 소재해 있는 한 貝塚으로부터 炭火된 쌀몽치와 磨製石劍과 石斧 石鏃 紡錘車와 함께 鐵鎌 銼片 등이 出土된바 있는 자료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類型的 資料가 이 곳에서 보이는 鐵製農具와 磨製石器는 모두 稻作農耕에 使用되었던 道具로서 이와 類似한 資料가 彌生式질그릇이 發生한 九州에서 發見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古式의 彌生式질그릇으로 알려진 板府式질그릇이 出土되는 福岡市 板付遺蹟과 熊本縣 齊藤山貝塚으로부터 金海貝塚에서 發見된 資料와 類似한 炭化米 磨製石劍 石斧 紡錘車가 出土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板付遺跡에서는 鐵製道具가 發見되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日本最初의 水田稻作을 위한 灌溉施設로 밝혀진 水田溝에서 掘着하였던 道具인 鐵製斧의 흔적을 남겨 놓은 곳이 밝혀진바 있다. 즉, 板付遺蹟에서 발견된 鐵斧遺蹟을 남겨놓은 道具와 類似한 鐵斧가 齊藤山貝塚에서 發見되었던 事實로 미루어 理解되리라 믿는다.

더욱 注目되는 점은 水田稻作의 灌溉施設속에서 炭화된 쌀몽치가 發見됨으로서 이 施設은 稻作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밝혀주는 좋은 資料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韓國으로부터 傳播 移植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水稻栽培技術과 機織技術 및 鐵製農具를 비롯하여 可藥里式질그릇系질그릇을 통해 理解되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 볼것 같으면 1979년에 北韓에서는 新石器時代의 住居址와 포함된 靑銅器時代의 住居地가 平安南道 平壤市 三石區 湖南里에 있는 南京遺跡을 發掘調査하였다. 이 조사에서 밝혀진바에 의하면 新石器時代 유구층으로 추정되는 地層의 住居址로 부터 炭化된 粟가 發見되었다. 또한 靑銅器時代에 該當되는 地層에서 發掘된 住居址로부터 炭化된 쌀을 비롯하여 豆, 黍등의 資料가 밝혀졌다. 또한 南韓地域 으로부터 全羅南道羅州郡多侍面에서 發見된 靑銅器遺跡에서 炭化된 쌀이 發見되었으며 京畿道羅州郡欣岩里遺跡에서는 炭化된 쌀과 보리(大麥) 기장(黍)수수(高粱)등이 밝혀지게 되었다.

以上과 같이 炭化된 粟이 發見된 南京遺蹟은 紀元前 2,000년에 該當되며 炭化米가 發見된 靑銅器時代의 같은 地域의 南京遺蹟을 비롯하여 多侍面遺跡과 欣岩里遺蹟은 世紀前1000年代로 推定하고 있는 實情이다. 이와같이 일찌기 稻作農業을 익힌 韓民族은 日本의 彌生文化에 直接的인 源流가 되었던 것이다.

稻作農業技術의 傳播와 같이 靑銅器文化는 銅劍, 銅鏡, 銅鐸, 鈴, 勾玉과 같은 宗教儀式具와 銅鉢, 銅戈등과 같은 무기류가 九州의 북부연안과 本州의 西端地方에서 發見되고 있음이 밝혀 지고 있다. 이들 銅製品은 主로 細形銅器로서 그의 種類는 多鈕細文鏡과 韓國式銅劍, 銅牟, 銅丈等을 들 수 있다.

이들이 出土되는 곳은 이미 언급한바와같이 本州의 西端에 位置해 있는 山口縣 下關市 梶栗浜에서 發見된 石棺墓로부터 韓國式 細形銅劍과 같이 多鈕細文鏡이 出土되었다. 特히 梶栗浜에서 發見된 遺跡중에 多鈕細形文鏡의 特徵인 3個의 鈕가 달린 小形의 銅鏡과 類似한 資料가 韓國의 咸鏡南道 咸興市 會上區 梨花洞에 所在했던 土廣墓에서 發見된바 있었던 多鈕細文鏡이 注目되는 바라 하겠다. 이와 같이 韓國에서 發見되는 靑銅器資料와 類似한 資料가 日本의 西部九州地方으로부터 本州地方에 이르기까지 擴大되어 있다는 점은 兩國間에 密接한 文化交流가 되어 있었음을 暗示해 주는 중요한 要素중에 하나가 될것이다. 多種多樣하게 받아들였던 韓國의 靑銅製文化要素를 바탕으로 이룩된 注目되는 資料는 近畿地方을 中心으로 特有하게 發展되어 왔던 靑銅製銅鐸에 대한 問題라 하겠다.

(2) 日本銅鐸의 특징

近畿地方을 中心으로 發展되어 왔던 銅鐸은 彌生時代 中期以後부터 盛行되기 始作하면서 日本特有的 靑銅器文化를 形成 하였던 것이다. 日本의 銅鐸은 一般的으로 韓國에서 發見되는 銅鐸과는 區別되는 것으로 鈕部와 鐸身部에 지느러미(鱗)가 달려있다는 점과 비교적 규모가 큰 점이 다르다. <사진 1> 그림에도 불구하고 日本사람들은 別途로 發展시켰다고 하는 銅鐸의 祖型을 韓國에서 찾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와같은 發展은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北九州 各地에서 일고 있었던 水稻耕作의 定着化와 아울러 本州地方으로 傳播된 耕作法을 받아 들이면서 점차적으로 村落社會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소위 國家形態로 成長되면서 地域의인 集團이 形成되고 새로운 면모를 추구하여 마침내 權位의 象徵的인 表像과 宗教儀式具의 必要性을 要求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형태로 발전하게된 日本의 村長들은 韓國에서 이미 쓰여왔던 宗教的이고 權威를 象徵하는 資料를 받아 들이면서 獨自의인 文化를 形成하는데 기여하게 되었다. 앞서 言及한 바와 같이 여러 종류의 靑銅器중에 注目되는 銅鐸은 날로 발전하는 소국이 成立에 있어 中樞的역할을 담당하는 器具였을 것이며 이는 共同體의 祭禮에 必要한 要素였을 것으로 믿어진다.

이들 靑銅器인 儀式具중에 銅鐸은 韓國地域에서 發見된 모습의 小銅鐸에 基本形인 菱形의 鈕 밑에 肩狹口廣의 平面橢圓形의 靑銅器를 基本形으로 삼아 이들은 模倣된 小銅鐸을 製造하면서 점차로 이를 儀式用具로 사용했던 것이다<사진 2>. 이와같이 使用되었던 韓國式宗教儀式具는 마침내 彌生時代後期後半에 들어서면서 극도로 形式化되는 傾向으로 發展하기 始作하였다. 즉 종전까지 關東以西의 各地域을 中心으로 分布圈으로 삼아왔던 과거와는 달리 폭넓게 發展시켜왔던 共同祭祈具로 使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銅鐸은 韓國式 銅鐸樣式과 관계없이 日本獨自의인 樣式으로 發展시켜 왔던 것이다<사진 3>.

近畿地域에서 成長된 銅鐸은 앞서 말하였던바와 같이 從來 韓國式 銅鐸과는 그 形態와 規模를 달리하는 銅鐸文化를 形成하였던 것이다.

以上과 같이 日本特有의 靑銅器文化를 形成시키기 앞서 日本과 韓國은 매우 密接한 關係속에서 이룩한 初期에는 韓國文化的 要素를 수용하는데 급급하여 無反省的으로 받아들였으나 漸次的으로 文明이 發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마침내 彌生時代 後半에 들어서면서 日本人들은 自覺現象이 일어나게 되면서 완전히 形態를 달리하는 銅鐸을 製造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韓國에서 輸入한 技術과 器種을 바탕으로 近畿地方을 中心으로 特別히 새로운 形態의 銅鐸을 開發하게된 것에 대하여 注目하게 되었다.

韓國에서 發見되는 銅鐸은 小形으로써 이는 宗教儀式具였던 것이다. 이를 繼承 踏習하면서 神聖視하는 儀式具를 止揚하지 않고 마침내 日本獨自의인 모습의 銅鐸을 開發하여 宗教的인 儀式을 통해 보다 나은 福祉社會를 이룩하려 하였을 것이다, 福祉社會를 指向하면서 指導者力과 그들의 獨自의인 權威를 象徵하기 위하여 종속적인 韓國式銅鐸式에서 벗어 나려는 自覺現象이 나타나 革新的인 慾望이 마침내 새로운 文化現象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추정할수도 있을 것이다.

韓國의 銅鐸을 母胎로하여 發展시켰다는 近畿中心의 銅鐸에 앞서 日本에서 宗教儀式具로 使用되었던 韓國式 銅鐸의 發見은 1977年度에 비로소 北九州 大分縣 宇佐市 別府에서 發見됨으로서 1977年以前까지만 하더라도 信憑性을 갖지 못하였던것을 確認하게 되었다.²⁾<사진 4> 別府에서 韓國式 銅鐸이 發見되기 전에 紹介된 資料는 靜岡市 有東第1遺跡과 靜岡縣 駿東郡 原町井出宇開峯, 靜岡縣 駿東郡 原町船津宇陣が澤遺跡등의 세곳에서 各各1個씩 出土되어 學界에 紹介됨으로서 注目하게 되었다.

이들 세곳에서 發見된 銅鐸의 出土사황을 살펴볼것 같으면 有東 第1遺蹟에 例는 彌生式時代 中期에 該當되는 곳으로 이 遺蹟의 表面에서 韓國式 동탁을 採集하였다고하는 데서 신빙성을 갖지

2) 大阪市立博物館, 「古代のロマンを求めて」, 『日韓文化交流展』圖版33, 1980.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開峯例는 單獨出土되었다고 하며 棟が澤遺跡에서는 後期古墳의 遺物과 같이 紹介되어 있어 이들 모두 의심하였던 것이다. 多幸히 九州 別府에서 確實한 韓國式銅鐸이 出土됨으로서 日本型銅鐸이 發生하기 以前 初期段階에는 韓國으로 부터 들어온 청동기 文化를 積極的に 받아 들였을 것이며 이들 중에 韓國式銅鐸도 包含되고 있었음을 立證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近畿地方을 中心으로 發展하였던 日本獨自의 文化現象으로 알려졌던 銅鐸文化는 韓國式銅鐸을 받아들여 이를 母胎로 삼아 마침내 日本特有의 銅鐸을 開發하게 되었다는 事實이 명확하게 되었다. 日本特有의 銅鐸으로 成長된 이 銅鐸形은 과연 日本獨自的으로 創案開發한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갖을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現在까지 韓國에서 發見된 靑銅器중에 日本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日本式銅鐸의 모습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고 있다는데서 近畿中心으로 일어난 銅鐸은 日本固有의 文化的要素로 主張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日本固有한 獨自의인 銅鐸文化를 形成하게 하였던 原動力은 韓國으로 부터 流入되어 온 韓國製舶載銅器중에 小銅鐸에 根源을 두고 있음은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九州地方을 中心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韓國式의 小銅鐸이 發見된 곳은 九州의

- ① 大分縣 宇佐市 別府
- ② 大分縣 大分市 大字横尾・多武尾
- ③ 福岡縣 春日市 岡本町四丁目
- ④ 福岡縣 春日市 小倉大谷
- ⑤ 福岡縣 春日市 大字小倉大南
- ⑥ 福岡縣 福岡市 博多區 蓆田赤穂, 浦

以上の 九州地方과 中國地方과 四國地方・中部地方・關東地方 등에서 韓國式 小銅鐸이 發見되고 있다.

中部地方에서는

- ① 鳥取縣 東伯郡 東郷町 北福北山
- ② 岡山縣 眞庭郡 落合村 下市瀬池尻

四國地方에서는

德島縣 美馬郡 脇町江原

中部地方에서는

- ① 静岡縣 静岡市 有東第一遺跡
- ② 静岡縣 駿東郡 原町船津宇陣ヶ澤
- ③ 静岡縣 駿東郡 原町東井出宇開峯

關東地方에서는

- ① 神奈川縣 高坐郡 海老名町本郷
- ② 栃本縣 小山市 田間西裏

이상과 같이 5地方 14個所에서 韓國式系流의 小銅鐸이 發見되었음이 밝혀지고 있으나 오직 近畿地方에서는 調査된 例는 없는 듯 하다. 近畿地方이 韓國과 깊은 因緣을 맺고 있는 지역임을 일반적으로 理解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地域에서 韓國式銅鐸이 밝혀지지 않은것은 次後 研究되어야 할 과제라고 하겠다. 또한 韓國式銅鐸의 影響을 받아 완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日本特有의 獨自的인 銅鐸을 개발하기 앞서 존재하였던 韓國식 小銅鐸은 어느 지방으로 부터 전래된 것인지에 대한 규명도 있어야 할것이다.

十四個所에서 發見된 資料중 北九州地方 東部に 位置하고 있는 大分縣 宇左市別府에서 出土된 小銅鐸은 韓國 慶尙北道 慶州郡 外東面 入室에서 발견된 小銅鐸과 가장 類似한 形態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³⁾ <사진 5> 이 小銅鐸의 構造를 살펴 볼것 같으면 菱形의 鈕에 肩部가 좁고 口緣部가 넓은 圓形斷面을 이루고 있으며 鐸身의 內空을 이루기 위해 속들을 設置하여 固定시키기 위하여 身部中央上部의 前後 左右에 4개의 方形孔을 통해 支足跡을 마련 하였다. 또한 鐸身 左右에 鑄痕 적만이 남아 있어 마침내 日本式銅鐸의 祖型을 이루게 하는 重要한 要素로 남게 되었다.

그러므로 別府에서 發見된 小形鐸은 바로 入室里 1號鐸과 매우 유사하며 거의 同時期이거나 약간 후에 鑄造된 作品으로 推定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入室里에서 출토된 小銅鐸은 韓國內에서 最初로 發見된 作品으로 이와 같이 伴出된 資料는 多鈕細文鏡片이었다. 이곳에 裝飾된 文樣과 器形은 日本地域에서 發見되는 多鈕細文鏡과 매우 類似하다는 점이다. 韓國銅鐸이 出土되는 곳에서 대체로 多鈕細文鏡을 비롯하여 細形銅劍이 함께 伴出하는 경우가 많다.

多鈕細文鏡의 共伴은 別府銅鐸의 編年設定에 重要한 要素를 內包하고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 하겠다. 이에 따라 別府銅鐸을 爲始하여 비로소 北九州地方을 中心으로 여러곳에서 倣製品이 出土되는 경우가 점차적으로 늘어 中國 四國 中部地方으로 擴大되었으며 이들은 주로 近畿地方의 外廓地에 分布되고 있다는 事實이다. 近畿地方의 외각지역에서 成長된 強力한 韓國式製銅鐸文化圈으로부터 脫出하여 과감한 日本式銅鐸으로 改革하게된 銅鐸은 마침내 近畿地方을 中心으로 形成하게 되었다는 것도 注目되는 점이라 하겠다. 近畿地方을 中心으로 이룩된 日本式 銅鐸은 여러형태의 모습으로 발전되고 있었음을 찾아 볼 수 있다.

앞서 言及한바와 같이 日本式銅鐸은 韓國式銅鐸인 入室里出土銅鐸과는 엄격히 구분 되는것으로 우선 명확히 구분되는 점은 규모가 巨大해지고 있을 뿐 아니라 鈕부와 鐸身に 이르기 까지 지느러미(鰭)가 첨가되는 한편 鐸身面에 裝飾文樣으로 裝飾되었다는 점이다<사진 6>. 그러나 典型的인 日本式銅鐸의 過度期的인 形態로 보이는 所謂 菱環式銅鐸이 출토된 곳은

兵庫縣 洲本市 中川原町二ツ石에 所在해 있는 隆泉寺의 銅鐸

兵庫縣 飾磨郡 夢前町 神種の 銅鐸

福井縣 坂井郡 春江町 井向의 銅鐸

등지로 밝혀지고 있다. 이들은 일본식 동탁의 초기형태로서 鐸身面에 橫帶文 혹은 四區袈裟襴文

3) 藤田亮策：梅原末治，「南朝鮮における漢代の遺蹟」、『朝鮮古蹟圖譜』第1冊，朝鮮總督府，1915.

에 의해裝飾되어 있다. 즉, 韓國式銅鐸身에裝飾紋이 첨가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菱環鈕式銅鐸 혹은 橫帶文銅鐸이라稱하고 있다.

이 菱環鈕式銅鐸의 菱環鈕에는 鋸齒文을 上下로 종합한 對合三角列帶文(日本學者들은 이 장식 무늬를 組紐文이라고 칭한다)으로裝飾하였다. 즉 鋸齒文은 三角形의 尖部가 上向한 부분은 空白을 이루고 逆으로 尖部가 下向을 한 鋸齒面은 集線文으로 空間을 매워 文樣帶를 形成하고 있다.

鐸身部에는 橫帶文으로裝飾하였는데 中川原銅鐸에서는 三段의 橫帶文을 配置하고 있으며 肩部에는 格子文橫帶를 두르고 中央에는 菱環鈕에裝飾하였던 무늬와 같이 橫帶中央에 1條線을 境界로 上下 組合시킨 對合三角列帶鋸齒文을裝飾하였으며 下段에는 높은 格子文帶와 鋸齒文帶로 構成하였다. 또한 夢前町神鍾의 銅鐸에 있어서는 菱環鈕에裝飾文樣은 中川原銅鐸과 같으며 鐸身の 橫帶는 中川原銅鐸身の 下段의 橫帶文樣과 同一한 文樣을 上中下段에裝飾하였으며 橫帶와 橫帶 사이에는 雙頭花樣渦紋을 三雙씩 配置하였다.

이곳에서 보이는裝飾文樣들은 鋸齒文樣을 비롯하여 格子文 雙頭花樣渦紋 등 모두 韓國青銅器중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무늬라는 점도 注目되는 것이라 하겠다(사진 6). 以上과 같이 菱環鈕式銅鐸을 위시하여 日本式銅鐸은 多樣한 鈕의 樣式에 따라 다음과 같이 分類하고 있다.

1. 菱環鈕式 銅鐸
2. 外緣付鈕式 銅鐸
3. 扁平鈕式 銅鐸
4. 突線鈕式 銅鐸

等으로 大別하고 있다.⁴⁾

즉 日本銅鐸의 樣式은 以上과 같이 鈕를 대상으로 네종류로 大別되며 變遷하는 順序도 大略 위에 나열된 순으로 이루어 졌을 것으로 보인다.

菱環鈕式銅鐸에서 밝혀진바와 같이 鐸身面에 多樣한 文樣으로裝飾되어 있는 것으로 그의 種類는 橫帶文을 비롯하여 四區袞裳襴文 流水文 綾杉文帶 區畫文樣 突線帶 등과 같은 多量한 文樣을裝飾하여 銅鐸이 갖고 있는 思想과 機能的이고 用途에 대한 것을 暗示하고 있다는 점에서 銅鐸의 裏面象을 예측할수 있다고 하겠다. 또한 外緣付鈕式銅鐸, 扁平鈕式銅鐸, 突線鈕式銅鐸에서 다같이 나타나고 있는 渦紋으로서 이는 지느러미 外廓에 雙頭渦文의 飾耳을 첨가한 것이 있다.

이상과 같이 日本銅鐸은 裝飾성이 豊富한 銅鐸으로서 實用的인 銅鐸으로 開發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울러 韓國式銅鐸과는 根本적으로 다른 理念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菱環鈕式銅鐸을 비롯하여 外緣付鈕式 銅鐸, 扁平鈕式 銅鐸까지는 鐸에서 基本的으로 갖추어 있어야 할 舌의 役割이라 하겠다. 菱環鈕式 銅鐸과 外緣付鈕式 銅鐸에서는 鈕部시설을 갖추어 있으며 鐸의 內空下邊에 마련된 突帶에 磨滅된 흔적이 남아 있어 使用되었던 것임을 立證하고 있다.

그러나 扁平鈕式銅鐸는 舌을 懸垂하도록 裝置를 갖추고 있으니 舌의 役割을하는 部屬品이 伴出

4) 佐原直, 『世界考古學 銅鐸の鑄造』大系2册 平凡社, 1960, pp.92~104

되는 예가 없으며 아울러 內空部에 舌의 作用으로 自鳴키위한 어떠한 磨耗된 흔적을 남겨 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이들 系統의 銅鐸에서 自鳴器로서의 機能的인 資料를 남겨 놓은 흔적은 찾을 수 없지만 鳴器라고 하는 점을 立證할수 있는것은 鐸表面에 打擊을 가하였던 흔적 즉 磨滅現象을 남겨 놓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들 계통은 간혹 지느러미(鱗)部分이 破損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는 懸架한 然後에 外部로 부터 打擊을 가하여 소리를 내도록 하였음을 暗示해 주고 있음을 알수 있다.

즉 菱環鈕式 銅鐸과 外緣付鈕式 銅鐸은 自鳴具의 範圍에 속하며 扁平鈕式 銅鐸과 突線鈕式 銅鐸은 打器로서 自鳴具의 구실은 갖지 못한 鳴器임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日本銅鐸은 다같이 器形은 같지만 機能上으로는 自鳴具와 打鳴具로 區分할수 있을 것이다. 自鳴具는 韓國系傳統을 繼承하였던 儀式具라 하겠으며 打鳴具야 말로 日本自體에서 改革한 日本獨自의 文化的要素로 發展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以上과 같이 彌生時代 後期後半에 들면서 등장된 日本特有的 金屬工藝作品인 銅鐸文化를 完成한 基盤위에 차차 歷史時代에 접어 들게 되었다.

鐵器時代에 들어서면서 打鳴具인 銅鐸과 같은 機能을 갖고 새로 登場하게된 새로운 佛教儀式具인 梵鐘에 있어서도 日本獨自의 樣式이 엿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3) 日本式梵鐘의 특징

日本에 佛教가 傳播되기는 대략 6世紀前後半期인 522年說과 538年說이 있는 가운데 發展은 거듭되어 왔다고 하겠다. 즉, 日本文獻資料인 扶桑略記 卷3에 인용된 延歷寺僧禪岑記에 의할것 같으면 繼體天皇16年(522)에 鞍部村主였던 司馬達止가 入闕하여 大和國高市郡坂田原에 草堂을 짓고 부처님을 모시고 禮拜하였다는 記錄이 있는 것을 筆頭로 上宮聖德法王帝說과 부합되는 元興寺伽藍緣起流記資財帳에 의한 欽明天皇7年戊午(538)에 佛教公傳說과 百濟의 東城子言 莫古가 欽明天皇8年丁卯(547)에 日本으로 入國함에 따른 公傳說, 書記에 記載된 欽明天皇13年任申(552)에 公傳說등이 있다. 이같이 公傳說이 分明하지 않은 속에 日本初期佛教는 百濟와 密接한 關係를 맺고 發展되어 왔을 것으로 推定된다.

日本の 佛教가 本軌道에 오르게 된것은 587年에 百濟系 蘇我氏는 用明天皇時代에 佛教公傳에 따른 保守信仰을 固守하였던 物部尾與派들이 배불派를 타도하고 推古天皇을 추대하는 한편 蘇我氏의 外孫이며 사위인 聖德太子로 하여금 推古天皇을 攝政하도록 한 事實이 있으며, 이에 聖德太子는 攝政期間에 佛教文化를 크게 일으키었다.

聖德太子는 用明天皇와 穴穗部間人인 皇后사이에서 태어난 太子로서 後代日本人으로부터 추앙 받는 인물이 되었다. 推古天皇29年(621)2월5일 반구궁에서 졸지에 逝去당하였다고 日本書記에 밝히고 있으나 太子의 傳記로 알려진 上宮聖德法王帝說에 의할 것 같으면 同皇30년2월22일로 보고자하는 것은 法隆寺釋迦像銘과 天壽國繡張銘을 근거로 설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곳에서 注目되는 점은 49세로 세상을 떠난 聖德太子와 母親인 穴穗部間人皇后의 冥福을 빌기 위하여 太子의 妃인 多至波奈大女郎의 애절한 추모와 기원의 결과로 인해 天皇의 命으로 天壽國繡帳이 이루어 졌던 것이다. 즉 太子께서 天壽國에 往生하는 場面을 묘사한 것으로 椋部秦久麻의 監督指導하에 東漢末賢, 高麗加西溢, 漢奴加已利등이 그림을 그리고 采女로 하여금 繡帷二帳을 만들어 내게되었음을 天壽國繡帳銘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⁵⁾

聖德太子의 母子를 위해 만들어진 이 天壽國繡帳을 통해 또 중요한 사실은 이곳에 장식된 여러 종류의 장면을 묘사한 도안 중 종각속에 있는 한 스님이 打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 자료를 통해 당시 불교의식을 집행하는데 있어 타종의식이 있었음을 암시해 주는 귀한 자료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주목되는 점이 이 天壽國繡帳에 묘사되고 있는 자료중 종각속에 스님이 타종하는 모습과 유사한 장면을 하고 있는 자료가 우리나라 京畿道安養市石水洞에 있는 磨崖鐘에서 찾아 볼 수 있다는 점은 놀라운 일이라 하겠다.

이 天壽國繡帳에 묘사되고 있는 범종의 형태와 양식을 살펴볼것 같으면 井上源太氏가 주장하고 있는 陣太建七年(575)銘 동종의 모습과 매우 흡사 한것으로 미루어 당시 사용되었던 범종의 모습과 장식성을 고찰하는데 실증자료가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자료와 함께 現在까지 알려진 日本梵鐘으로서 最古의 作品으로는 京都市右京區花園妙心寺町の 所在해 있는 妙心寺 在銘鐘을 들 수 있을 것이다.⁶⁾ 銘文에 의할것 같으면 戊戌年四月十三日壬寅收槽屋評造春米連廣國鑄鐘이라는 二十二字로서 鑄造年代를 暗示하고 있다. <사진 7> 戊戌年은 文武天皇二年(698)에 該當되는 것으로 일본범종의 母形으로 삼을수 있을 것이다.

이 鐘의 모습을 살펴 볼것 같으면 天蓋인 鐘蓋 頂上部에 마련된 쌍두용뉴는 천관쪽에 비해 높게 보이는 것이 눈에 띈다. 肩部와 鐘身下端에는 帶를 두르고 있는데 이帶에는 連續唐草紋으로 裝飾되어있으며 鐘身上部에는 四區의 乳廓을 갖추고 있다. 乳廓에는 各各 4段7列의 28個 총 112개의 乳頭가 있으며, 또한 鐘身の 前後左右에는 上下帶를 連結하는 縱帶를 配置하고 다시 身의 中下部에는 中帶를 두었다. 中帶와 縱帶가 接하는 위치인 鐘身の 左右에는 鐘座를 配置하였다.

以上과 같은 形態는 앞으로 言及하겠지만 韓國梵鐘樣式과는 根本적으로 區分되는 것이라 하겠으나 三國時代 百濟梵鐘樣式과는 類似했으리라 믿어진다. 百濟系樣式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앞서 언급된 天壽國繡帳에 보이는 圖案중에 貴重한 鐘閣圖資料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사진 8>

이 資料의 完成年代에 對하여는 明確치 않으나 聖德太子의 母子에 逝去年代와 이들의 往生淨土인 天壽國에 머물러 계실것을 기원하는 발원에서 이룩되었다는 事實에서 그리 멀지 않은 時期 즉 推古天皇30년(622)以後에 곧 이루어 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고 보면은 日本에 있어서 亡者의 往生天壽國을 祝願하는 그림중에 宗教儀式을 위한 여러가

5) 大橋一草, 『天壽國繡帳の原形』, 『佛教藝術』, 117호 毎日新聞社, 1978. pp. 49~79

堀幸男, 『天壽國繡帳復元考』, 『佛教藝術』, 110호 毎日新聞社, 1976, pp. 100~124.

6) 坪井良平, 『日本の梵鐘』, 角川書店 昭和45年, p. 53

지 장면중에는 梵鐘이 登場되고 있다는 점과 그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하여 이해 할수 있을 것이다.

7世紀前期에 使用되었던 梵鐘의 모양과 施設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좋은 資料가 될뿐 아니라 當時에 使用되었던 梵鐘의 形態를 자세히 묘사하지 않았으나 妙心寺在銘鐘의 形態와 類似하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게 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佛敎儀式具인 梵鐘에 있어서 東洋三國에서 쓰여지는 그들은 제각기 다른 특성을 들어 내주고 있는 것으로 韓國梵鐘樣式과는 다르다 하겠으나 부분적인 요소에 있어서는 공통성을 찾아 볼 수 있다고 하겠다.

現存하는 日本鐘으로서 가장 오래된 梵鐘은 奈良時代に 該當되는 7世紀末인 698년에 製鑄되었던 妙心寺梵鐘을 비롯하여 觀世音寺鐘, 興福寺鐘, 新藥師寺鐘, 園城寺鐘, 織田神寺鐘, 當麻寺鐘, 法隆寺西院寺鐘, 法隆寺東院寺鐘, 東大寺鐘, 藥師寺鐘, 東福寺鐘, 雪野寺鐘, 金峰山寺本堂鐘, 眞禪院鐘 등의 15口の 鐘이 알려져 있다.

15口の 奈良時代梵鐘을 위시하여 平安朝 時代の 27口, 鎌倉時代に 131口, 南北朝時代に 112口, 室町時代に 228口 등 總 513口の 梵鐘이 알려져 있다. 이들 외에 日本에는 무수한 韓國梵鐘과 中國鐘이 共存하고 있다.

513口の 梵鐘중에는 日本에서 鑄造한 韓國鐘을 模倣한 鐘이 1口가 있어 주목된다. 日本에서 韓國梵鐘을 모방한 時期는 豊臣秀吉에 의해 朝鮮侵略을 단행한 壬辰亂以後 韓國으로부터 보다 많은 韓國文化를 移轉하기 위한 정책으로 文物과 人材까지 증발하여 江戸時代に 이르러서는 大板府柏原市玉手に 所在해 있는 安福寺樓鐘과 같은 梵鐘을 生産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安福寺樓鐘과 같은 韓國鐘을 그대로 모방한 例는 그리 흔한 일은 아니겠으나 日本獨自의인 梵鐘을 이룩한 日本鐘에 있어서 部分的인 韓國梵鐘 樣式要素가 加해져 있음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 범종을 고찰하기 위해 한국범종의 요소를 살펴보면서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Ⅲ. 韓國體鳴具의 發達

앞서 밝힌바와 같이 일본사람들은 독자적으로 발전시켜왔다는 문화요소중에 종교의식구로 알려진 동탁문화에 대하여 자부하고 있다. 독자적으로 발전시켜 왔다는 동탁문화속에 주목되는 한국 문화적 요소가 첨가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특히 銅鐸과 梵鐘속에 한국문화적 요소의 존재여부를 밝히기 앞서 한국금속공예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1) 韓國銅鐸의 특징

한국에서 발견되는 동탁은 靑銅器時代 遺蹟을 비롯하여 初期鐵器時代 遺蹟으로 부터 출토된 遺物로서 小鐸 혹은 馬鐸이 알려지고 있다.⁷⁾ 이 遺物의 起源은 明確치 않으나 中國 殷代遺物중에 類

7)李進熙, 「戰後朝鮮考古學의發展」, 『考古學雜誌』45-1, 1959

似한 例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⁸⁾ 現在까지 韓國文化圈안에서 小銅鐸이 發見된 곳은 다음과 같다

- ① 忠清南道 大田市 槐亭洞
- ② 平安南道 大同郡 大同江面 貞柏里 夫租滅君墓
- ③ 平安南道 平壤市 貞柏洞 採石場
- ④ 平安南道 平壤市 石岩洞
- ⑤ 平安南道 大同郡 大同江面 梧野里
- ⑥ 平安南道 平壤市 東大院洞
- ⑦ 平安南道 平壤市 美林洞
- ⑧ 平安南道 大同郡 龍岳面 上里(希昌洞)
- ⑨ 평안남도 태성리 무덤
- ⑩ 黃海道 殷栗郡 西部面 雲城里
- ⑪ 慶尙北道 慶州市 九政里
- ⑫ 慶尙北道 慶州郡 外東面 入室里
- ⑬ 滿州 遼寧省 樓上
- ⑭ 日本 大分縣 宇佐市 別府
- ⑮ 日本 大分縣 宇大分市 大宇橫尾多武尾
- ⑯ 日本 福岡 縣春日市 岡本町 四丁目
- ⑰ 日本 福岡縣 福岡市 博多區 蓆田赤穂ノ浦

위에서 밝혀진바와 같이 이곳에서 논하고자하는 銅鐸資料가 出土되는 地域의 分布地에 대하여 대략 알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小銅鐸이 발견되는 地域과 더불어 이들의 生産관계에 대하여는 명확히 못하나 韓國地域에서 製造하였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鑄範이 발견되어 주목되었다.⁹⁾ <사 진 9>

小銅鐸을 鑄造하였음을 立證해 주는 資料인 鑄範인 거푸집이 平安南道 大洞郡 地域에서 수집된 것으로 材料는 滑石材로서 완전하지는 못하다. 그러나 완전하지 못한 거푸집의 발견이지만 우리나라에서 銅鐸을 製造하였음을 밝혀주는 중요한 자료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라 하겠다.

以上과 같이 한국에서 거푸집과 동탁이 발견됨으로서 이들이 製造된 地域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이들이 발견되는 분포지역은 대체로 韓國의 西部地域인 平安道, 黃海道, 南東部인 慶州地域을 中心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또한 銅鐸이 발견되는 곳은 대체로 墳墓地域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小銅鐸이 出土되는 곳에서는 이 밖에도 靑銅器時代에 代表的인 유물은 細形銅劍을 비롯하여 銅鏡 銅銚 銅戈등이 供伴되는 경우가 종종 밝혀지고 있다. 이와같이 靑銅器가 주축이 되어 伴出되는

8) 水野清·小林行雄編, 『考古學辭典』, p. 460.

9) 梅原末治·藤田亮策, 『朝鮮古文化問綜鑑』, 第1卷 p.74 圖版 40.

遺構로부터 銅鐸이 나타나는 時期는 靑銅器時代에 까지 이르게 될 것으로 믿어 진다.

현재까지 알려진 우리나라의 銅鐸資料중에 考古學的인 編年을 통해 밝혀진 최고의 作品은 忠清南道大田市槐亭洞에서 出土된바 있는 3개의 銅鐸을 들수 있을 것이다. <사진 10> 이 小銅鐸은 韓國特有的 細形銅劍1個와 多鈕粗文鏡 2個, 單鈕素文圓形銅器 1個, 盾形銅器 2個, 竹節形儀器 3個, 天河石製曲玉 4個, 磨製石鏃 3個, 無文土器1個, 黑陶 1個와 같이 發見되었다.¹⁰⁾ 이곳에서 伴出되는 遺物중에는 앞서 言及한바와 같이 小銅鐸이 發見되고 있으나 馬鐸과 관계되는 馬具類는 發見되지 않고 있는 점은 注目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여러 종류의 資料가 發見됨으로써 이들의 編年說定에 基本資料로 삼는 細形銅劍과 多鈕粗文鏡을 통해 銅鐸이 出現된 時期는 細形銅劍이 流行하던 紀元前4世紀末~3세기초에 쓰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곳에서 出土된 粗文鏡이 쓰였던 時期는 B.C. 2世紀初以前에 大同江流域에서 製作되어 錦江流域으로 流入된것으로 보고 있다.¹¹⁾

그러나 尹武炳博士는 細形銅劍文化의 上限을 紀元前4世紀末~3世紀初로 보 있는 점으로 보아¹²⁾ 槐亭洞遺蹟에서 發見된 銅鐸은 B. C4世紀末~3世紀初를 前後하는 時期에 該當되는 遺物로 推定해야 할 것이다. 즉 上限을 B.C4世紀末부터 下限을 B.C.世紀初期間에 製造되었을 것으로 推定되는 小銅鐸의 形態는 菱形의 鈕가 달린 鐸身은 斷面 楕圓形과 杏仁形(릭비불 形)의 두종류가 있는데 이는 後者에 속하는 것으로 狹肩口廣의 身經을 구비하고 있다. 그러므로 좁은 扁部와 넓은 口緣部를 갖은 直徑의 차이는 현저하여 長徑比를 살펴 보면 1.36의 比率를 갖고 었다.¹³⁾

以上과 같은 槐亭洞銅鐸은 伴出된 細形銅劍과 多鈕粗文鏡의 編年에 따라 年代를 推定되고 있으나 平安南道 大同郡 大同江面 貞柏里에서 發見된 夫租滅君墓에서도 銅鐸과 더불어 「夫租滅君」이란 銘文이 있는 銀印과 細形銅劍및 鐵製劍등이 出土된바 있으므로 鐵器時代에도 계속 쓰여졌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이곳에서 出土된 銅鐸은 槐亭洞銅鐸과 類似하나 口緣部가 좀더 넓어서 肩部長肩의 比는 1.85 : 1, 1.81 : 1이라는 數價가 나왔으며 黃海道 段栗郡 雲城里에서 調査된 銅鐸은 4점으로 細形銅劍·銅銚·馬鐸·五銖錢등이 발견되었다. 이 고분에서 발견된 五銖錢은 馬鐸의 부속인 舌로 사용된 것으로 추종되어 이들 유구의 編年說定에 좋은 資料로 쓰이게 되었다.¹⁴⁾ 五銖錢이 通用되던 時期는 前漢末부터 後漢初頃으로 보고 있다.

10) 李殷昌, 「大田槐亭洞靑銅器文化의 研究」, 『亞細亞研究』, 30號 1968

11) 全榮來, 韓國靑銅器文化의 系譜와 編年—多鈕鏡을 中心으로—

12) 尹武炳, 『韓國靑銅器文化研究』, 藝耕産業社, 1987. 3, p. 119

13) 田村晃一, 「朝鮮半島からみた日本の靑銅器」, 『Museum』, 311, 1977.

14) 梅原末治, 藤田亮策, 『朝鮮古文化綜鑑』, 第1卷 1947, p. 26.

岡崎敬은 夫租蔣君墓의 造成年代는 前漢宣帝元鳳5年(B.C75)以降으로 後漢 光武帝 建武6年(A.D30)으로 比定하기도 하며 또 白練行은 B.C82年以後의 人物로 推定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B.C.82로 부터 B.C.75년 사이로 불수도 있을 것이다.

이 遺構에서 出土된 銅鐸은 역시 肩部長徑보다, 口緣部徑이 1.77~1.78이라는 比가 나온 것으로 미루어 時代가 떨어질수록 肩長徑과 口緣長徑과의 比例差가 심함을 찾아볼수 있게 되었다.

夫祖藏君墓에서 出土된 銅鐸形態와 類似한 資料가 平安南道 大同郡 龍岳面 上里에서도 3個의 銅鐸이 發見된바 있다.¹⁵⁾ 이와같은 韓國銅鐸은 紀元前 4C경부터 始作하였을 것으로 推定되는 槐亭洞銅鐸을 위시하여 五銖錢과 같이 伴出된 雲城銅鐸으로 인해 下限을 前漢末~後漢初頃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짐작하게 되었다. 특히 주목되는 資料가 慶南北道慶州郡外東面入室里에서 소위 日本式銅鐸과 類似한 銅鐸이 發見된바 있다.¹⁶⁾ 즉 外緣付鈕武銅鐸으로 추정되는 韓國唯一한 作品으로서 이는 銅鐸을 鑄造할때 생긴 鑄合線이 그대로 물고기의 지느러미(鱗)와 같은 모양으로 남은 흔적으로 발견되어 주목하게 되었다. <사진 5>

이 銅鐸을 日本銅鐸의 祖形으로 보고자 하는 경향이 높아졌다. 鑄合線인 지러미가 발견된 유적에서 伴出된 유물로는 外緣付鈕式 銅鐸과 類似한 銅鐸외에 同系에 속하는 菱環鈕式 銅鐸으로서 鐸面에 裝飾文樣이 첨가된 자료도 발견되었다.

이들 作品과 또다른 形態의 銅鐸2個와 銅製鈴付板頭, 銅製鈴付鐻形金具, 銅戈 2個의 狹鋒銅鉞 2個 細形銅劍등이 함께 伴出되었다¹⁷⁾ 여러종류의 靑銅器를 伴出한 入室에서 발견된 자료와 더불어 銅鐸의 編年設定에 資料가 되는 細形銅劍이 伴出되어 製造年代를 짐작할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 유적에서 발견된 자료중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銅鐸인 전통적인 菱環鈕式 銅鐸은 이 유적에 이르러 새로운 樣式인 銅鐸으로 發展하게 되었다.

앞에서 소개한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菱環鈕式銅鐸의 鐸身面는 無文으로 되어 있으나 이 유적에서 밝혀진 銅鐸은 有文의 새로운 資料로 出現하게 되었다. 有文의 銅鐸과 더불어 새로 등장하게 된 것은 中國古銅器인 甬鐘(甬鐘)과 같은 모양의 鐸身을 가춘것으로 尖部인 舞의 頂上中央에는 菱環鈕式의 傳統樣式의 꼭지가 마련되어 있다.

鐸身胴體의 形態는 甬鐘의 胴體를 따르듯 眞圓이 아닌 銀杏形의 橢圓으로 水平이 아닌 下端의 兩端은 尖形의 銑을 이루고 있다. 兩銑間에는 弧狀의 內灣을 이룬 菱形의 특징을 취하고 있다. 甬鐘形의 鐸身表面에는 종래의 鐘桴과 다른 무늬裝飾을 가추고 있다는 점이다.

鐸身面에는 三段橫線으로 上·中·下의 三段線帶를 두른 사이에 縱으로 鋸齒文을 左右로 組合한 對合三角列帶文으로 장식하였다. 거치무늬 속에는 集線文으로 空間을 매웠으며 이와 같은 무늬는 永川魚隱洞에서 出土된바 있었던 銅製馬形帶의 平鑲장식문에서 찾아 볼수 있다. <사진 11> 위와같은 무늬장식을 갖춘 동탁을 일반적으로 마탁(馬鐸)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좀더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즉 菱環鈕式의 銅鐸으로는 앞서 소개한바와 같이 종래부터 전해 내려온 槐亭洞銅鐸形을 IA式이

15) 梅原末治·藤田亮策 『朝鮮古文化綜鑑』, 第1卷 p34.

16) 藤田亮策·梅原末治 『大正十一年度古蹟圖譜』, 第2冊 朝鮮總督府, 1922, 「南朝鮮における漢代の遺蹟」 『朝鮮古蹟圖譜』 第1冊

17) 梅原末治 藤田亮策, 『朝鮮古文化綜鑑』, 第1卷, pp. 43~45

라 하고 入室里에서 보이는 새로운 菱環鈕式有文銅鐸을 IB式으로 구분 할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入室里遺蹟에서는 IA IB式的 銅鐸이 共存하고 있음을 알수 있게 되었다. 이 入室遺蹟으로부터 IB式銅鐸이 과생되었을 것으로 推定되는 새로운 鈕를 갖춘 銅鐸과 竿頭飾의 竿頭鈴인 銅製鈴付柄頭와 銅製鈴付錨形金具등 여러 종류의 體鳴具등이 出現되었음을 알게되었다.¹⁸⁾

앞에서 소개된 두 종류의 銅鐸인 菱環鈕銅鐸系와 더불어 새롭게 등장된 銅鐸이 入室里에서 出土되었다는 이들 銅鐸을 들수 있을 것이다. 이들 銅鐸은 이미 여러개가 소개된 바 있다.¹⁹⁾ 이들의 資料는 慶州市坪里와 入室里²⁰⁾에서 수습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慶州坪里出土例는 5개가 되고 入室里에서는 3개가 소개되었다.

8개의 銅鐸의 形態는 다같이 中國의 甬鐘形態의 鐸身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IB式에서 과생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IB式과 다른점은 鈕部에서 구분된다. IB式과의 정도의 차는 있으나 鐸身の 기본형을 같이하고 있으면서 鈕部の 變化를 들어내고 있다.

坪里와 入室에서 出土되었다는 이 銅鐸은 甬鐘에서 보이는 鐸蓋인 舞의 中央部에 고리형태의 꼭지를 갖추고 있다고 주목되고, 이들은 傳統的인 菱環式의 꼭지로 부터 축소된 작은 꼭지로 변화된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계통의 銅鐸을 II형이라 가칭하고자 한다. II형의 銅鐸은 다시 三角形의 尖形鈕와 方形의 鈕로 구분되고 있다. 前者를 II A型이라 하고 後者를 II B型으로 칭하고자 한다.

8個의 銅鐸중 II A型은 6개가 되고 II B型은 2個로 이에 해당된다. 尖形鈕와 方形鈕를 갖추고 있는 銅鐸을 가리켜 馬鐸이라 칭하며 이와같은 類型은 간혹 馬具와 같이 出土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馬具類로 구분하고 있다. 이들은 一般的인 銅鐸보다는 소형으로서 鐸身인 몸체에는 細文鏡에서 볼수 있는 格字文과 幾何學무늬로 裝飾되어 있다.

以上과 같이 II A.B形의 銅鐸인 馬鐸은 다같이 自鳴施設인 鈕를 갖추고 있으며 I A.B에서 基本構造인 속형틀의 支足孔이 사라지는 동시에 舞中央에 마련된 꼭지의 한쪽에 貫通孔을 남겨놓고 있다. 以上과 같이 I 과II는 서로 다른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찾아 볼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I 과II에서 찾아 볼수 있었던 鈕式은 이미 紹介한바와 같이 槐亭洞出土 銅鐸으로부터 五銖錢을 呑인 추대신으로 사용된 銅鐸이 黃海道 段要郡 西部面 雲城里유적²¹⁾에 이르기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계속 菱環鈕式의 鈕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미루워 菱環鈕式이야말로 韓國의 傳統樣式으로 推定할수 있을 것이다.

傳統樣式으로 推定되는 菱環鈕式의 鈕를 갖추고 있는 入室里유적에 이르러 II式에서 볼수있는 여러 종류의 鈕가 새로 첨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다. IB와 II式에서 共通性을

18) 梅原末治·藤田亮策, 『朝鮮古文化綜鑑』, 第一卷, 圖版第二二.

19) 金延鶴編, 『韓國의 考古學』河出書房新社, 1972, 國版 74, 75.

20) 慶州市坪里라고 밝혀지고 있는 坪里라는 洞名이 慶州市域에서는 찾아 볼수 없으므로 大邱地域에서 찾아 보아야 할 것이다.

21) 大동강 유역 고분발굴보고, 『고고학자료집』제1집, 1958

취하고 있는 점은 앞서 소개된바와 같이 鐸身部에 있어서 口緣部가 內曲(灣曲의 弧狀을 갖춘)형태와 裝飾性을 취하고 있는 것을 들수 있겠으나 그의 器形의 祖形은 中國의 古銅器인 甬鐘에서 구할수 있다고 보았으며 實用的인 면에서는 달리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共鳴器인 甬鐘과 銅鐸은 다같이 體鳴器의 범위에 포함되나 甬鐘은 打鳴器로 부터 發達된 것이며 銅鐸은 自鳴器로부터 시작하여 打鳴器로 發展되었을 것으로 推定된다.

現在까지 밝혀진 韓國의 銅鐸資料중에는 外打擊에 의한 自鳴具는 發見된바 없으며 오직 韓國에서 알려져 있는 自鳴具인 銅鐸은 內打擊設인 桴(鉦)를 갖추고 있는 種類가 主流를 이루고 있다. 이와같은 自鳴具의 技能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연히 桴(鉦)를 거는 施設이 要望하게 된다.

그러므로 槐亭洞銅鐸에서는 鑄造시 속틀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支足孔을 鐸身전후 좌우에 마련하였으며 이 시설을 이용하여 鐸鉦를 설치할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와 다른 양식으로는 鐸蓋頂部에 鉦를 마련한 左右에 각각 1個씩의 구멍을 뚫은 예라 하겠다. 이 두곳의 관통은 鉦를 사이에 두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鉦를 달기위한 施設인 것으로 추정된다.

鐸鉦左右에 마련된 두개소의 구멍은 桴를 달기위한 시설로서 이와같은 구조가 갖추워 있는 것으로는 入室과 慶州坪里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와같은 樣式의 동탁을 가리켜 馬鐸이라고 한다.

馬鐸이라고 불리는 銅鐸은 앞서 소개된바 있는 槐亭洞銅鐸系인 菱環鉦式系統에서 흔히 찾아볼수있는 支足孔施設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주목되었다.

Ⅱ式의 A와B에 속하는 資料중에 있어서 鐸鉦가 마련된 中央部옆에는 1개의 貫通孔이 施工되어 있다. 이와같이 鐸蓋에 貫通孔이 마련된 자료가 출토되는 入室里와 坪里에서 Ⅱ式에 該當되는 資料가 처음 밝혀졌다.

앞서 밝힌바와 같이 菱環鉦式銅鐸을 비롯하여 小形혹은 方形의 鉦式銅鐸은 다같이 自鳴具임은 틀림없는 것이라 하겠으나 鐸에 形態와 裝飾에 있어서 그의 기능과 용도를 달리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後者는 馬鐸인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는 이와같이 伴出된 資料중에 馬具類와 馬車에 使用된 부속품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그리 볼수도 있을 것이다. 特히 Ⅱ式資料에서 보이는 鐸蓋에 마련된 혹은 貫通孔은 차후 日本梵鍾이나 中國鐘과 관련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以上과 같이 靑銅器時代로 부터 初期鐵器時代에 이르기 까지 宗教儀式具로 쓰였던 銅鐸은 마침내 馬具인 馬鐸과 같은 自鳴具와 建築用인 風鐸등이 과생하게 되었다. 古式의 이것들은 百濟後期 遺蹟인 彌勒寺址에서 出土되었다. 이 風鐸은 金銅製品으로서 鐸頂에는 큼직한 고리형의 環形의 꼭지가 달려있으며 鐸身은 타원형의 平面을 이룬 偏鐸으로 肩部에 上帶와 下部端 下帶를 갖추었으며 左右에는 縱帶가 마련된 下端部에는 銑形을 취하고 있다. 鐸身下端에는 左右에 兩銑을 이룬 사이 中間에 銑을 이루워 마치 四處에 菱形을 이루고 있다.

鐸身上部 四處에 浮廓을 마련한 속에 5個의 乳頭를 配置하였으며 鐸의 乳廓사이에 해당되는 中央밑에 單瓣八葉의 蓮華文 撞座를 갖추고 있어 마치 梵鍾과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이는 韓國梵鍾의 先驅的인 要素를 갖추워 있어 注目된다. 韓國의 自鳴具인 銅鐸을 비롯하여 馬鐸과 같은 內打 自鳴具에서 벗어나 새로운 樣相의 外打鳴具인 梵鍾이 佛教文化의 輸入과 더불어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2) 韓國 梵鐘의 특징

韓國에서 발견되고 있는 金屬製 體鳴器는 이미 靑銅器時代末期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그의 형태는 독자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비파형동검이나 세형동검 또는 동경(銅鏡)에서 찾아 볼수 있는 바와같이 이들의 모습은 중국이나 스키타이(Scythi)계통에서는 찾아 볼수 없는 독자적인 형태와 양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같이 비파형 동검과 다뉴조문경(多鈕粗文鏡)을 비롯하여 세형동검(細形銅劍)과 세문경(細文鏡)등을 사용하였던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작품과 같이 출토되는 동탁도 한국 독자적인 모양가춤세를 취하고 있음을 앞서 밝혀지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다,

이상과 같은 배경속에서 발전되어 온 한국의 다음 문화발전단계인 초기 철기시대와 역사시대를 맞이 하게 되면서 국제적인 차원의 새로운 문화에 접하게 되면서 마침내 인도에서 발생한 체계적이며 고급종교인 불교에 입문하게 되었다. 고급화 종교로 발전하게 됨에 따라 이에 따른 종교의식은 엄숙하고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질서와 규율이 요구되는 의식이 요망되었을 것이다.

소단위의 씨족 혹은 부족집단으로 부터 다부족집단으로 발전하게된 초기국가 사회의 종교형태도 변천을 하게되었다. 즉 단순한 종교의식과 다부족집단으로 발전형성하게 된 초기국가 형성기부터 종교의 역할도 무시 못할 만큼 큰 비중을 갖고 발전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성장된 종교는 어떠한 목적과 통일성이 요구되는 종교가 요망되게 되었을 것이다. 또한 종교가 지향하는 목적과 결과를 요구하는 종교도 발전하는 동시에 까다롭고 엄숙한 의식을 요구하게 되는 동시에 의식도 필요한 기구인 의식구도 요구되었을 것이다. 또한 종교행사에 필요한 의식구의 등장과 이와 더불어 포교의 필요성이 요망되었을 것이다.

의식과 포교의 필요성에서 요구되었던 의식구의 일종인 범종은 불교의식구의 대표적인 범구(法具)로 추정된다. 범종의 기원에 대하여 명확치 않으나 중국 은대이후 발전되어 온 고동기종 예기(禮器)에 속하는 外打鳴具인 박(縛)정(鉦) 종(鐘)중에서 종을 모방하여 발전시켰다는 설과 內打自鳴具인 탁(鐸)에서 발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두 설이 있다. 이 외에 인도에서 일찍이 개발된 건추(健椎)로 부터 발전해 왔다는 견해도 있다.

外打鳴具인 梵鐘이 언제부터 불교사원에서 의식용구로 쓰여져 왔는지는 명확치 않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삼국시대부터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불교 유입은 북쪽에 위치한 高句麗를 위시하여 百濟, 新羅순으로 전래되 왔음을 문헌자료인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 밝혀지고 있는 바라 하겠다.

문화교류에 따라 전래된 불교는 국가적으로 공식적인 공인을 받게 되기는 小獸林王5年(375)으로 보고 이보다 3년전에 불상과 건문이 이미 前秦의 王符堅이 파견한 사신과 順道에 의해 전해 받으므로 시작되었다고 하나 실은 黃海道 安岳郡 龍順面 柳雪里에서 고구려시대 벽화고분의 발견으로 편년에 대하여 재고하게 되었다.

이 壁畫古墳에서 주목되는 墨書銘이 발견되었으며 그 명문중에 고분축조 년대를 밝혀 주는 永和十三年(357?)의 년호가 밝혀짐으로서 주목하게 되었다. 이 고분벽화를 조사하면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고분의 묘주는 冬壽임이 밝혀졌으며 벽화중에 불교적인 요소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불교가 공인되기 22년전에 이미 고구려사회에는 불교가 어느정도 보급되고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음을 알수 있게 되었다.²²⁾

고구려의 경우 374년 즉 安岳3號墳이 축조된지 22년후에 불교가 공인되고 수도내에 肖門寺와 伊弗蘭寺를 창건함으로써 마침내 東海에 佛法을 널리 전파될 계기를 小獸林王5년에 이르러 실시하게 되었다. 사원이 건설되고 불교의식이 실시되었을 것으로 추종되며 이에 수반되는 法具들의 등장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조사된 자료에 의할것 같으면 불교초전시의 불구를 규명할 길이 없음은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다만 문헌자료인 『三國遺事』에서 몇구절의 범종자료를 얻을수 있음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백제 26대 聖王7年(527)에 公州에 大通寺를 창건한 그때에 절마다 울려 퍼지는 종소리가 市京을 흔들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梵鐘의 실재를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²³⁾

이때 사용되었던 범종의 모습은 명확치 않으나 日本 井上源太氏가 所藏하고 있는 「陳太建七年(574)十二月九日」이라는 銘文이 있는 小鐘에서 梵鐘의 모습을 대략 짐작 할수 있을 것이다.<사진 12> 이 형태를 좀더 명확하게 입증해 주는 자료가 622년에서 멀지 않은 시기에 만들어 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繡工藝品인 天壽國繡帳에 장식된 도안중에 鐘閣속에 설치된 鐘架에 매달려 있는 범종과 打鐘하려는 童僧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梵鐘의 形態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범종의 모습을 갖고 발달된 범종은 신라 眞平王때에 挑花女와 鼻荊郎에 관한 기록중에 다음과 같은 일화를 찾아 볼수 있다. 鼻荊郎에 의해 귀신을 부려 神元寺 북쪽에 위치한 荒川에 鬼橋를 세우게 되었다고 한다. 연유에 의할것 같으면 이는 매일 밤 王都인 月城 서쪽 荒川언덕 위에서 귀신들과 놀다가 절에서 들려오는 새벽종소리를 듣고 각기 헤어진다는 이야기를 통해 범종소리의 위력과 기능을 짐작하게 하고 있다.²⁴⁾

귀신을 쫓는 역할을 하는 打鐘은 工藝品인 萬佛山에 설치된 三口의 紫金鐘에서 鐘의 역할과 佛教儀式에 있어서 念拂·供養·禮拜를 유도하기도한다. 이와같이 鳴鐘을 위한 부족된 시설과 도구에 대해 밝히고 있는데 시설물로는 鐘閣을 두고 蒲牢에 매달려있는 鐘은 鯨魚라는 打具인 撞을 구비하고 있는 점을 밝혀주고 있다.²⁵⁾

天壽國繡帳과 萬佛山자료와 비견되는 자료로서 京畿道 安養市 石水洞에 있는 磨崖鐘에서 梵鐘

22) 朱榮憲, 『高句麗の壁畫古墳』, 學生社, 1972

23) 『三國遺事』卷第三 興法 第三原宗興法에 백제의 1日都공주에 大通寺를 세웠던 사실과 院院鐘聲動帝京이란 구절이 있다.

24) 一然, 『三國遺事』卷 第1紀 異第1 挑花女鼻荊郎

25) 一然, 『三國遺事』卷 第4 四佛山, 堀佛山 萬佛山

의 규모와 樣式 및 打具인 撞 즉 鯨魚의 形態를 알 수 있어 주목된다.

天壽國수장에서 찾아 볼 수 있었던 바와 같은 양식의 磨崖鐘에서 梵鐘의 규모가 鐘打者인 僧侶의 身長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三國遺事 券第4塔像第4 皇龍寺鐘 芬皇寺藥師 奉德寺鐘條에서 그 사실이 입증되는 것이라 하겠다. 신라 제35대 景德大王 天寶13年甲年(754)기사에 의할 것 같으면 皇龍寺鐘의 높이 1丈3寸에 두께9寸 무게 497.581근의 종을 鐘匠인 里上宅에 의해 鑄造되었던 사실과 곧 이어 先王인 聖德王의 冥福을 빌기 위하여 黃銅 12만근을 마련 鑄鐘하러 하였으나 성취하지 못한 것을 惠恭王 6年大曆庚戌年(770)에 현존하는 聖德大王神鐘인 奉德寺鐘을 鑄成한 것을 보아 當時 梵鐘의 규모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하겠다. <사진 13>

현존하는 韓國梵鐘중에 가장 큰 이 聖德大王神鐘을 비롯하여 主조년대가 가장 오래된 江原道 五臺山 上院寺인 開元13年銘(725)梵鐘에서 한국범종의 전통적인 특징을 갖춘 양식을 찾아 볼 수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바라 하겠다. <사진 14>

우리의 범종은 중국범종이나 일본범종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형태와 양식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동양삼국 범종중 가장 아름답고 고운 음색을 들어내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라 하겠다.

한국범종의 형태는 마치 장독을 어퍼놓은 형태로 중국 주나라때 사용되었던 악기중에서 용종의 양식과 특징을 구비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기도 한다.

한국 범종의 양식적 특징을 살펴 볼 것 같으면

1. 종머리에 해당되는 정상 중앙에는 포리(蒲牢)인 單頭의 龍鈕와 甬筒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종신의 상단에는 상대(上帶)인 견대(肩帶)를 하단에는 하대(下帶)인 구연대(口緣帶)를 갖추고 있고 그 사이에는 무늬장식이 둘러져 있다.
3. 견대 밑에 방형의 문양대인 4개치의 유곽(乳廓)을 같은 간격으로 배치하였다.

이 유곽 속에 9개의 유(乳)를 중횡으로 3개씩 3열로 정연하게 배치하였다.

4. 네곳의 유곽이 마련된 밑 공간에는 撞座와 비천 혹은 불보살을 배치했다.
5. 종신하단의 구연부 안쪽에는 혀모양의 단면 마족형(馬足形)시설을 갖추고 있다.

위의 다섯종류의 특징은 중국종이나 일본종에서는 찾아 보기가 드문 요소라고 하겠으며 이는 신라종은 물론 고려 종에서도 그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과 같은 기본형태를 갖고 있는 한국범종은 시대를 달리하여 가면서 부분적인 새로운 양식이 첨가되면서 발전되고 있는 사실을 찾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범종의 조형으로 보는 상원사(암)범종보다 46년후에 주조된 聖德大王神鐘은 大曆6年(771)에 것으로 그의 양식은 전통적인 요소를 충분히 계승하면서 종 어깨부분인 상대와 종머리 천판과 연결되는 부분에 보상화문(寶相花文)을 장식한 연판대(蓮瓣帶)를 둘러었으며 하대부는 팔능(八稜)으로 처리하였다.

이와같이 성덕대왕신종에서 보이는 천판의 연판대는 후대작품에도 계승되고 있으나 구연부에 마련된 팔릉형의 양식은 퇴화되는 듯 재현된 범종은 없는듯 하다. 이곳에서 천판연화대문을 장식한 범종을 II式이라 하고 상원사 범종양식을 따른 것을 I式이라 가정하고자 한다. 성덕대왕신종

에서 나타난 천판연화대 양식을 따른 Ⅱ式은 日本 山口縣 下關市 住吉神社寶庫에 걸려있는 신라 후기 범종에서 찾아 볼수 있으며 이 양식은 고려시대에 접어들면서 다양하게 발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려시대에 접어들면서 전기에는 주로 천판연화대장식이 쓰여져 오다가 후기에 들어서면서는 이 천판연화대가 불상의 관식(冠飾)에서 볼수 있는 모습의 立狀帶(突起帶)로 발전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려시대는 전기에는 천판연대화대를 가춘 Ⅱ式과 후기에 나타나는 立狀帶인 立狀花文帶를 가춘 Ⅲ式이 등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과 같이 전통적인 정형양식과 Ⅱ, Ⅲ式의 양식의 출현으로 고려범종양식의 특징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朝鮮時代に 접어들면서 한국범종은 고려의 멸망과 더불어 전통양식은 퇴색되는 한편 중국범종과 일본범종양식과 유사한 절충양식이 출현하게 되었다. 興天寺銅과 普信閣鐘을 비롯하여 洛山寺, 奉先寺, 甲寺, 江華銅鐘등과 같은 銅鐘은 寺院의 梵鍾과 門樓의 銅鐘에속하는 Ⅳ式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 Ⅳ式은 다같이 종신의 천판중앙에 마련된 單頭龍鈕와 甬筒의 전통양식이 중국종이나 일본종에서 쓰여졌던 雙頭式龍鈕로 대체된 양식으로 변천되는 동시에 사구(四軀)의 유곽을 가추고 있는 두 종류와 유곽을 갖추지 않은 종류로 전자를 ⅣA式과 후자를 ⅣB式으로 구분되는 양식이 출현하게 되었다.

ⅣA式은 불교의식구인 범종으로서 종신상단에는 상대대신에 연화문건대의 출현과 상대가 마련되는 위치에는 上下 각각 일조(一條)의 융기횡선(隆起橫線)을 두르고 그사이에는 무무늬의 공간을 형성하였다. 그밑에 간격을 둔 사구의 유곽을 배치 하였으며 종신 중간부에는 삼조(三條)의 융기횡선을 마련하여 종신의 상부와 하부로 구분하는 경계선(境界線)을 이루고 있다. 종신하단에 마련되었던 하대는 하부의 1/3상단에 위치에 마련하였으며 그 곳에 파도무늬를 장식하였다.

이와같은 양식을 취한 범종에는 특별한 撞坐가 마련되지 않은 것이 또한 특징이라 하겠다. 또한 ⅣB式은 ⅣA式과 대동소이하나 유곽은 완전히 탈락되는 동시에 사면에 보살입상이 배치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조선범종은 신라시대부터 발생된 한국범종의 전통적인 양식에서 벗어난 중국식 혹은 일본식의 절충양식이 등장됨으로서 조선범종의 특수양식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이 종식을 미화하는 장식적인 변화는 있다 하겠으나 오직 변화를 당하지 않은 전통적인 요소는 종구연부의 단면이 계속 마죽형의 혀를 가추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상과 같이 왕조의 교체에 따라 우리나라의 범종양식이 현저하게 변화 발전하였던 점과 이들의 여러 요소중에 일본에 미친영향에 대하여는 다음장에서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IV. 日本文化에 보이는 한국적인 요소.

앞서 밝힌바와 같이 한국과 일본은 지정학적관계로 인해 문화교류의 선린관계를 필연적으로 맺고 있었음은 역사학과 고고학 및 공예미술분야를 통해 명백하게 규명되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

선 생활공예분야에 있어서 선사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중에 질그릇의 교류를 비롯하여 농작물 중에 한국인과 일본인들이 주식으로 삼는 쌀의 경우에 있어서도 한국에서 일본으로 전했었다는 사실이 점차 밝혀지고 있다. 생활용구와 주식종자가 일본으로 옮겨졌다고 한다면 이에 수반되는 종교도 전달되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그러므로 앞 절에서 소개한바와 같이 일본체명구(日本體鳴具)인 동탁과 범종의 모양을 통해 독자적으로 개발 발전시켰다고 보려는 경향이 있기는 하나 그들의 작품에 숨겨져 있는 요소중에 한국적인 어떠한 요소가 도사리고 있으므로 이들을 규명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한국에서 발견되고 있는 체명구는 청동기시대의 유품으로 밝혀지고 있는 동탁으로서 이는 1920년대에 이미 慶尙北道慶州郡外東面入室里에서 최초로 학계에 소개된 이래 한국 銅鐸중에 제조편년이 가장 빠른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가 忠淸南道大田市槐亭洞에서 1967년에 발견된바 있다.

이와같이 일찌기 알려진 동탁에 대한 용도에 대하여 명확하고 명료한 해답을 현재까지 얻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설에 의할것 같으면 이들을 마탁(馬鐸)이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지배적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정동을 비롯하여 입실리에서 반출되는 유물중에는 어떠한 마구자료도 발견된바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볼때 이들 동탁은 마탁으로 인정하기는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믿어진다. 그렇다면 청동기와 같이 발견되는 동탁은 어떠한 용도로 쓰여졌던 시설자료일까, 하는 문제에 접하게 되었다.

동탁은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內空된 鐸身에서 自鳴施設인 추를 달아 內打하도록 설계가 된 것임은 이미 밝혀지고 있는 사실이라 하겠다. 내타시설을 갖추고 있는 이 동탁이 쓰여지는 용도에 대하여 명확치 않으나 농경사회에 접어 들었던 후기 청동기시대에 쓰여 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솟대에 부속품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솟대는 농경사회에 있어 마을공동체의 신앙의 시설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三國志』魏志 東夷傳 韓條에서 찾아 볼수 있는 귀중한 자료는 「國邑各立一人 主祭天神 名之天君 又諸國名有別邑 名之爲蘇塗 立大木縣鈴鼓」라는 구절을 통해 큰나무장대를 세우고 그 시설물에는 방울(鈴)과 북(鼓)등의 부속물이 갖추어져 있었음을 밝혀주고 있다. 이와 같이 솟대는 방울과 북을 갖추고 있는 시설물이라는 사실과 鬼神을 다스리는데 쓰였던 것임을 알수 있다.

『東國歲時記』에 수록된 제주도 풍속에 대하여 濟州俗二月朔日 歸德金寧等地 立木竿十二 仰神祭之」라는 구절에 의해 밝혀진바와 같이 木竿을 세워 神의 來往處또는 교량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임을 알수 있게 하였다.

신령을 불러들이고 또한 하늘로 올라 갈수 있도록 마련된 솟대에는 방울과 북을 부착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들 부속품외에 일본측 기사인 『續日本記』卷第二 文武天皇條기록에 의하면 「大寶元年春正月乙亥朔 天皇御大極殿受朝 其儀於正門樹鳥形幢云云」한 예를 보아 大極殿 正門에 소위 까마귀 솟대를 세웠다는 기록을 통해 알수 있듯이 새를 앉혔던 풍습이 일본에서도 있었음을 암시해주는 좋은 자료라고 하겠다.

이와 같이 솟대에는 방울 북 새를 동반하고 있음을 알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풍습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청동제 공예품에서 찾아 볼수 있다는 사실이다. 1970년 말에 국립박물관에 소장하게 된 소위 농경무늬장식 청동기의 전면과 후면에는 여러 종류의 무늬장식이 있는 중에 앞면에 해당되는 곳에 주목되는 무늬장식을 관찰할수 있다. Y자형으로 뾰운 나무가지의 끝부분에는 각각 한마리 씩 마주바라 보면서 앉아 있는 한 쌍의 새무늬가 있다. 이 무늬를 가리켜 솟대로 추정하고 있음은 이미 학계에서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무늬가 솟대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는 뒷면에 농경무늬 장식에서 더욱 명백하게 해주고 있다. 이와 같이 솟대에는 방울과 북외에 새를 갖추고 있었음이 농경문청동기에 의해 밝혀져 중요한 자료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 솟대에 부착되고 있는 방울 북 새들은 상호간에 연관 관계가 매우 밀접한 인연을 맺고 있는 듯 하다. 즉 새와 방울의 관계는 다같이 소리내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생각할수 있을 것이다. 방울과 새가 맺고 있는 주목되는 귀중한 자료가 慶尙北道 慶山郡 飛山洞에서 발견되어 湖岩美術館에 收藏되어 있는 세형동검의 검파두식(劍把頭飾)을 들수 있다.²⁶⁾ <사진 15> 이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검파두식에 한 쌍의 오리모습을 장식한 몸체는 속이 비어 있으며 그 속에 방울 알이 들어 있어 검을 흔들면 방울소리가 나도록 마련되어 있다.

이와 유사한 예가 시베리아 레페티카 산맥(M. Lepetikha)부근의 쿠르칸 무덤에서 출토된 청동제 장대투겁(bronge standard tops)은 꽃봉오리 모양의 방울위에 오리한마리가 앉아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을 찾아 볼수 있다.²⁷⁾ <사진 16> 이와 같이 많지않은 자료를 통해 새와 방울을 같이 하는 공예품은 솟대나 혹은 笏 등에 관련된 종교의식구임을 알수 있을 것이다.

이 곳에서 문제는 솟대는 고정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방울이나 북은 외부로부터 어떠한 자극을 주지 않고는 소리를 낼수는 없다는 결점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이 솟대에 설치되었을 때는 상징적인 시설물로 봄이 마땅하다 하겠다.

솟대에 부착된 방울과 북, 새들의 기능적인 면에서 이들이 신의 상징적인 종교의식구에 지나지 않으나 귀중한 자료가 알려졌다는 사실이다.²⁸⁾ 흑해연안에 위치한 스키타이(Scythai)청동기가 1909년에 쿠반지역(Kuban) 즉 크라스노달 테리토리(New Krasnodar territory)에 있는 한 울스키(Ulsky)무덤으로 부터 장대투겁(Poletop)이 발견되었다. <사진 17> 새의 목과 꼬리부분에 각각 한개씩의 작은 동탁이 달려있음을 알수 있다.

또한 예카테리노슬라브(Yekaterinoslav)지방에 이렛산드로폴(Alexanaropol)무덤에서 발견된 것으로 새가지 위에 각각 한마리씩의 새가 앉아있는데 이 새의 주둥이에는 각각 한개씩의 동탁이 달려 있는 것을 찾아 볼수 있게 되었다. <사진 18>

26) 拙稿, 「세형동검과 검파형동기의 조형상의 의미 해석」, 『孫寶基博士 停年紀念 考古人類學論叢』, 1988. 3, 31
 27) 이필영, 「마을 공동체와 솟대신앙」, 『孫寶基博士 停年紀念 考古人類學論叢』, 1988.
 M. Rostovzeff 1929 THE ANIMAL STYLE IN SOUTH RUSSIA AND CHINA
 Princeton monographs in Art and Archaeology, XIV plote X II
 28) Boris Piolrovsky, Ludmila Galanina, Nonna gach; SCYTHIAN ART. 도판 58, 187, 188.
 Phaidon Press Oxford, 1987

이를 통해 Scythia계통에서는 간두식에 방울이나 동탁을 새와 같이 장식한 것을 미루워 볼 때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솟대에 방울을 달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바이며 또한 방울외에도 방울과 같은 기능을 가진 동탁도 달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흑해부근에서 발견되는 간두식인 장대 투겁에 방울 대신 동탁을 달은 데가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간두식인 장식투겁에 방울대신 동탁을 달은 예를 미루어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청동기 유물중에 동탁이 1~3개 이상 출토되는 것을 볼때 이들도 솟대에 사용되었던 부속물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든다.

그러므로 동탁은 솟대나 혹은 제사장인 추장 또는 무당들이 종교의식에 사용하였던 의식구인 장대나 특수 종교의식구에 부착된 부속품임은 틀림 없을 것으로 믿어진다.

솟대의 새와 더불어 부착됐던 동탁이 어떤 이유로 퇴화되었는지는 명확치 않으나 방울보다는 불편한 요소가 있는데서 점차 사라 졌을 것으로 믿어진다. 그러므로 동탁은 종교 의식구에 속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 문화적 요소는 한국으로 부터 그대로 일본으로 청동기와 함께 전해졌으리라 믿어진다.

일본에 있어서 솟대자료는 對馬島, 頭配지방에 있다는 소식은 들은바 있으나 보지못해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으며 일본에도 솟대가 있음을 앞에서 소개한바 있다. 또한 솟대자료인 木製鳥가 大阪府和泉市池上遺蹟에서 발견된 자료가 있다.²⁹⁾〈사진 19〉 이와 같이 솟대의 부속품인 木製鳥가 발견되고 있을 뿐 아니라 九州지방을 위시하여 여러 곳에서 한국식 동탁이 발견되고 있었음은 앞에서 밝힌바 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일본 종교 미술품 속에서 한국의 종교문화요소를 찾아 볼수 있다.

兵庫縣神種에서 발견된 外線付鈕의 동탁몸에 橫帶文이 있는 사이에 雙頭渦文을 비롯하여 突線鈕를 갖춘 袈裟摺文과 雙頭渦文을 장식한 유물이 兵庫縣渦森에서 발견된 동탁 그리고 奈良縣石上町宮內廳 流水文銅鐸, 大阪天神山출토 袈裟摺文銅鐸, 滋賀縣 石山寺邊 突線文의 銅鐸등과 같은 동탁에는 한결같이 雙頭渦文이나 雙頭文을 장식을 하였다.

이 雙頭渦文은 매우 흥미있는 무늬로서 이는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청동기시대 유물중에 全羅南道 和順郡 道谷面大谷里와 洛東江流域尙州地方으로 알려진 곳에서 발견된 팔주령(八珠鈴)과 雙頭鈴 그리고 출토지가 명확치 않은 肩甲形銅製品에 장식되어 있다.³⁰⁾ 이들은 다같이 종교의식구로 추정 된다.

종교의식구로 추정되는 공예품에 장식된 쌍두무늬는 아마도 신령을 상징하는 무늬로 추정된다.

이와같이 신령을 상징하는 무늬는 한국청동기공예품에서 주로 발견되는 것으로서 한국청동기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일본청동기에서도 찾아 볼수 있다는 점을 미루워 볼때 매우 흥미 있는 예라 하겠다.

29) 拙稿, 前掲論文

30) 東京國立博物館藏 小倉 콜렉션

한국의 문화적요소는 동탁에 뿐만 아니라 梵鍾에서도 찾아 볼수 있다. 한국과 일본에는 수많은 불교공예품을 남겨 놓고 있는데 이들중에 불교의식구인 범종에 있어서도 독자적인 양식으로 양국이 개별적으로 발전시켜왔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한국범종과 일본범종은 양식적으로 쉽게 구분되고 있는 실정이다. 鐘架에 걸기위한 龍紐를 비롯하여 鐘浮頭의 수자 그리고 撞座部를 鐘身의 최대 직경을 정한 梵鍾에서 현저하게 구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양국의 梵鍾이 엄연히 구분되면서도 鑄造技術상에 있어서 한국범종의 주조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증거를 발견할수 있다는 점은 주목되는 점이라 하겠다.

앞서 소개한바 있는 한국범종의 기본바탕을 이루고 있다는 上院寺梵鍾과 聖德太王神鐘에서 장식과 주조기법등을 완성했으며 이 전통이 계승되고 이 기법을 따르고 있음은 주목되는 점이라 하겠다.

上院寺梵鍾을 기준하여 살펴 볼것 같으면 종신의 상대부분으로 부터 하대에 이르는 사이에 종신경(鐘身경)이 가장 넓은 부분은 바로 이곳에 당좌(糖座)가 위치한 부분이 되고 있다. 이와같이 상대부와 하대부의 직경은 좁은 반면에 당좌가 위치한 부분의 직경이 가장 넓은 구조를 갖게 됨으로써 한국범종의 鐘聲을 결정하는 특징을 이루게 되었으며 이 구조야말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을 밝힐수 있게 되었다. 즉 상대부분에서 당좌부분에 이르는 사이에 점차 직경이 넓어 지다가 다시 鐘口부분에 이르면서 차차 좁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자연히 종신벽의 특수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즉 상대부분에서 당좌부분에 이르는 사이에 종신벽의 두께를 거의 같은 두께로 유지하면서 종구에 이르면서 급격하게 두꺼워져 말발굽형(馬足形)을 이루고 있다. (사진 20) 이와 같은 구조는 일본 범종에서 일반적으로 찾아 볼수 있다는 양식이라는 점에서 주목하게 되었다.

일본 최고의 범종으로 알려진 奈良時代の 作品인 妙心寺鐘과 福岡縣 觀世音寺鐘의 예를 들어 보면 한국 범종과 현저하게 구분된다. 妙心寺범종의 경우 상대로 부터 하대인 종구에 이르기까지 점차 넓어 지고 있는 점이 한국범종과 현격하게 구분되는 요소라고 하겠다. 주목되는 점은 상대부분으로부터 종대에 이르기 까지의 종신벽의 두께는 점진적으로 두꺼워 지다가 종대부분에 해당되는 종내벽부터 종하단인 종구(鐘口)까지는 수직을 유지하고 있다.

즉 종건으로부터 종하단인 종구에 이르는 사이에 최대직경을 이룬 부분은 종구가 된다. 자연히 종건부의 두께보다 종구벽의 두께가 더 두꺼워지고 있다는 점은 바로 한국동탁의 외형 양식을 따르면서 이루어진 형상이라 하겠다. 외형적인 형태로부터 일본범종의 형태가 형성됨에 따라 자연히 주조구조에 특성을 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이 妙心寺鐘과 福岡泉權世音寺鐘의 造形構造에서 日本初期梵鍾의 특성 분석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이 두건에서 주목되는 점은 종건부에 해당되는 종벽의 두께는 비교적 얇은데 비해 종대가 위치하고 있는 부위로부터 종신내벽은 종구까지 수직상태를 유지하게 되면서 종구부의 두께가 현저하게 두꺼운 것이 日本梵鍾의 특징으로 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사진 21> 이와같은 양식은 奈良時代前期作品에서는 흔히 찾아 볼수 없는 구조이며 後期作品에서는 대체로 한국범종의 내부구조양식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 奈良縣 東大寺 天平勝寶四年(752)銘鐘과 金峰

山寺本堂鐘 岐阜縣眞禪院鐘과 같은 奈良後期作品에 있어서는 한국범종의 특성을 따르고 있다.
<사진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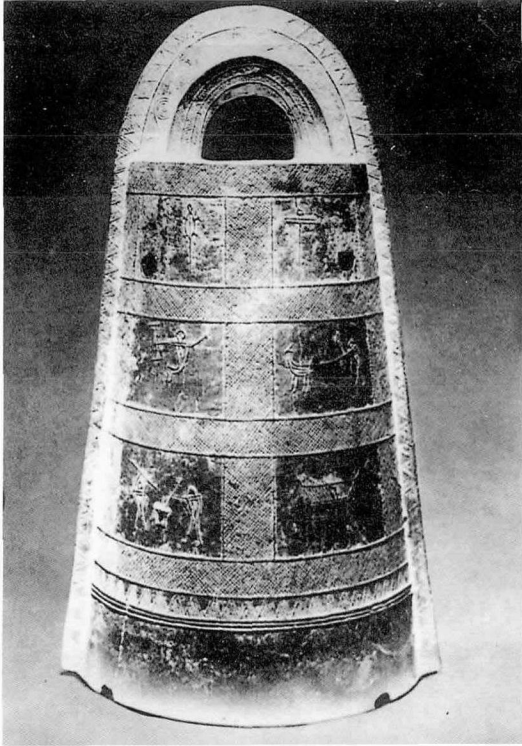
한국범종의 특성이란 요소는 이미 밝힌바와 같이 종신의 직경이 가장 넓은 곳은 당좌가 배치된 위치가 되며 이 부분으로 부터 종구에 이르기 까지 약간 좁아지는 경향을 들어내주고 있다. 이에 따라 범종내부구조를 살펴 보면 종신 상대부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부터 당좌에 이르기까지 완만한 최대곡선을 유지하다가 이 지점에 이르러 다시 종구까지는 反曲線을 형성하고 있다. 이와같은 구조는 奈良朝後期에 鑄造된 東大寺梵鍾을 비롯하여 그후 작품들 중에서 종종 출현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주목되는 것이라 하겠다.

일본 범종의 구조는 平安時代以後부터는 본 궤도에 올라 모든 범종의 내부구조는 한국범종내부구조를 따르게 된 것으로 보아 한국문화적요소는 일본범종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으며 그의 전통은 일본범종에 계속 전승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범종에서 이와 같은 구조를 전수받게된 큰 원인은 종소리를 곱게하고 여음을 길게 하는 작용을 하는 데서 취택하게 되었을 것으로 믿어 진다.

이상과 같이 일본의 체명구는 독자적으로 개발 발전하였다고 하나 이들은 면밀히 분석 고찰하여 보면 한국문화적 전통요소가 많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찾아 볼수 있게 되었음을 매우 흥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V. 결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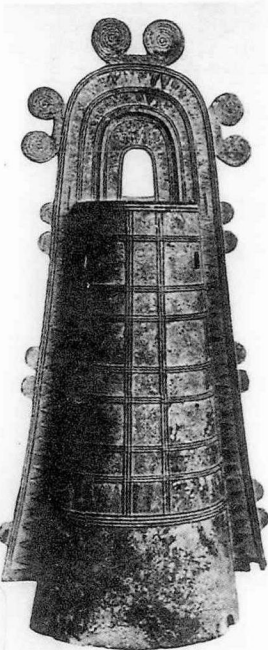
한국과 일본은 선사시대부터 혹은 태초부터 금일에 이르기 까지 밀접한 선린관계를 맺고 있음은 많은 자료를 통해 이해 되리라 믿어 진다. 명치유신이 형성되기 이전의 일본문화는 한국의 문화적배경하에 형성되고 있었음은 생활공예미술품을 비롯하여 종교의식구, 농산물에 이르기 까지 한국적문화요소가 내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찾게 되었다. 특히 일본 금속체명구인 동탁을 비롯하여 범종에 이르기 까지 한국식 문화적 요소가 일본 문화의 도처에서 찾아 볼수 있게 되었다.



〈사진 1〉 架梁樛繪畫文銅鐸 傳香川



〈사진 2〉 橫帶文銅鐸 兵庫神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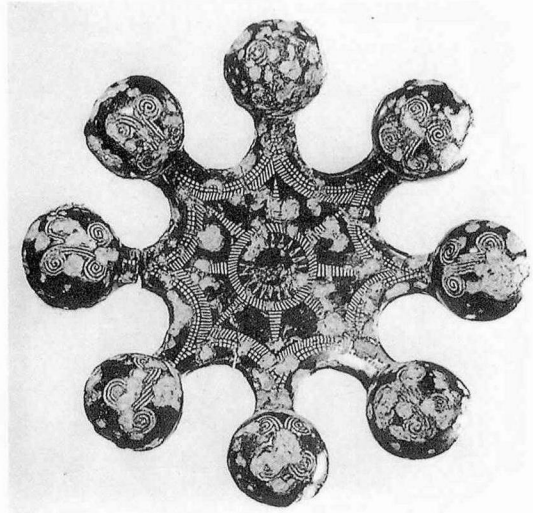
〈사진 3〉 容線文銅鐸 滋賀石山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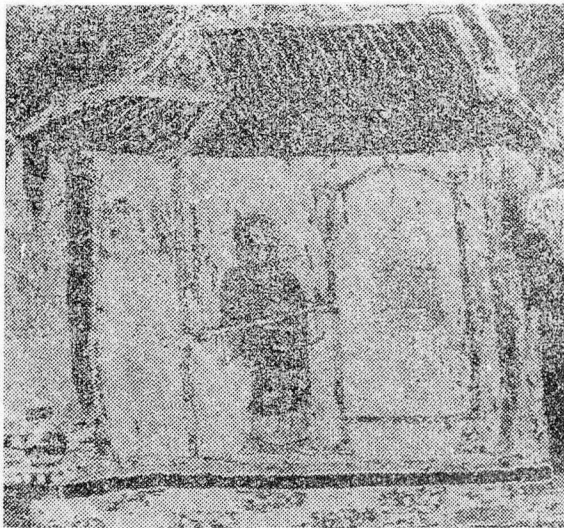
〈사진 4〉 韓國式銅鐸 九州別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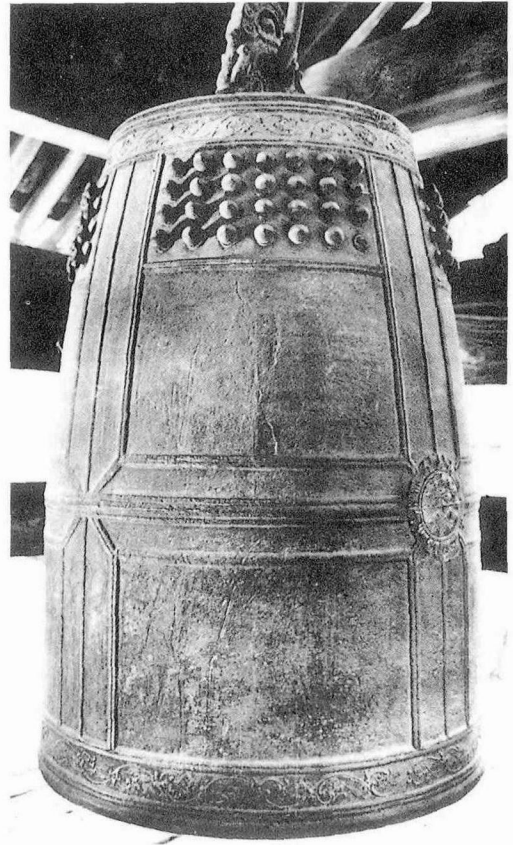
〈사진 5〉 銅鐸 入室出土



〈사진 6〉 八珠鈴



〈사진 8〉 天壽國繡帳鐘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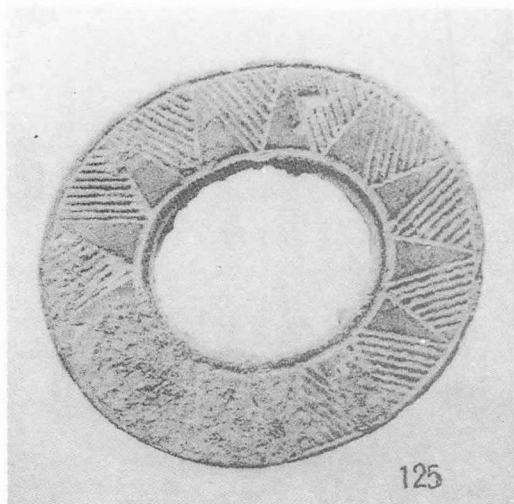
〈사진 7〉 妙心寺鐘



〈사진 9〉 鑄 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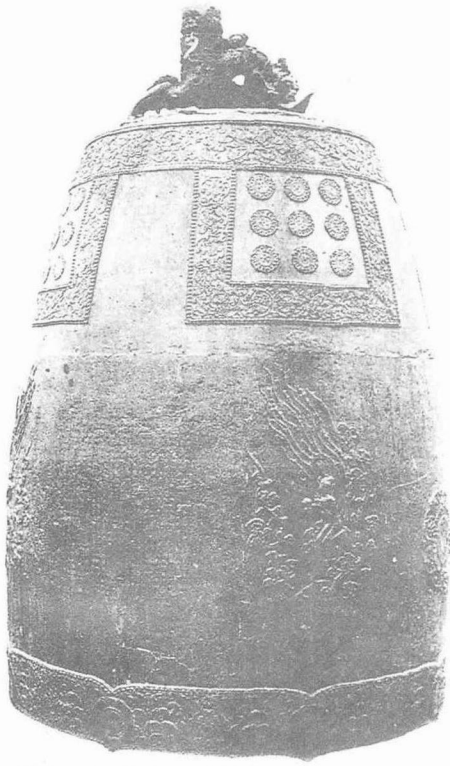
〈사진 10〉 槐亭洞出土 銅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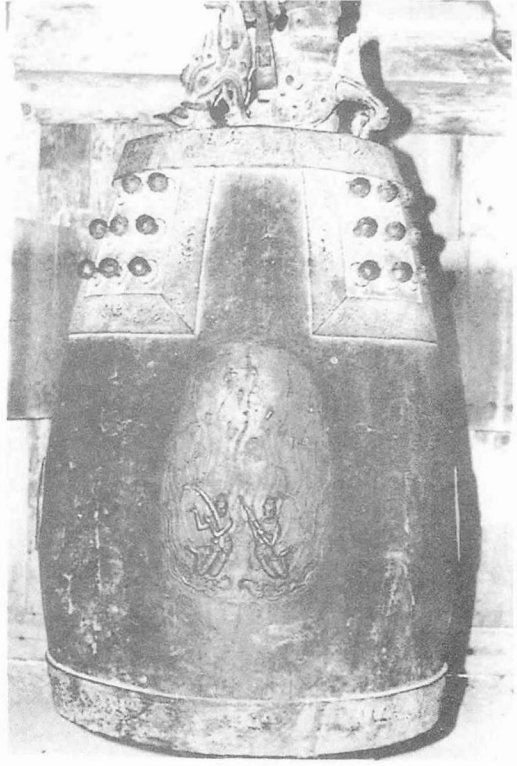
〈사진 11〉 永川 魚隱洞出土 平鐸



〈사진 12〉 陳太七年銘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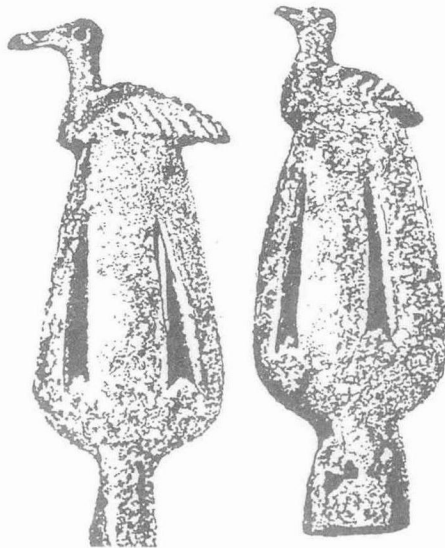
〈사진 13〉 聖德大王神鐘



〈사진 14〉 上院寺鐘



〈사진 15〉 검파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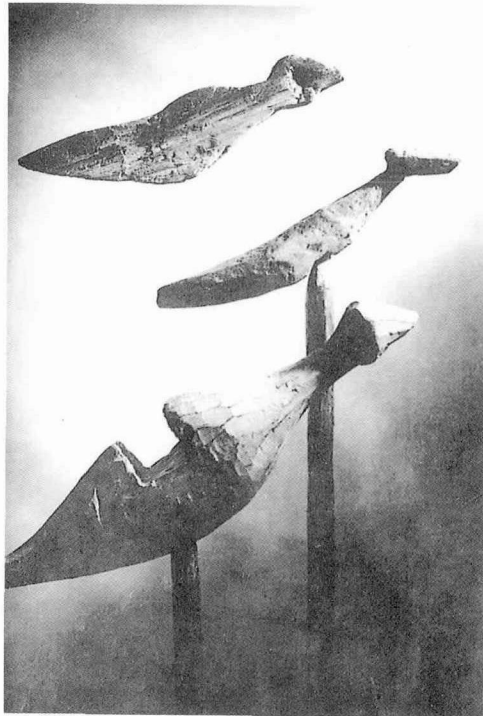
〈사진 16〉 장대투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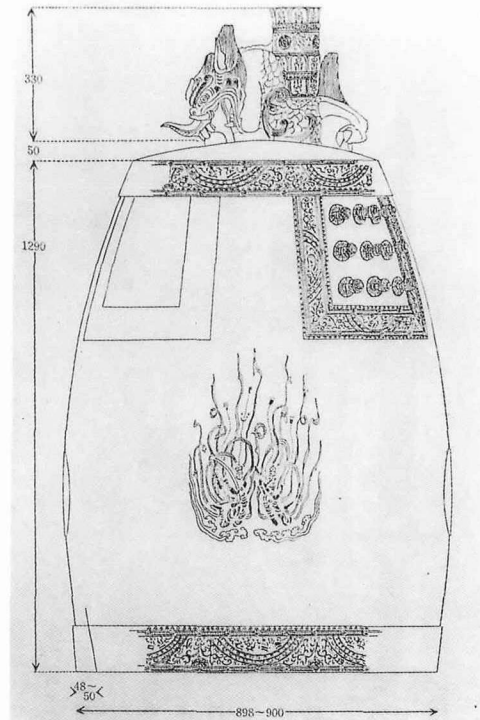
〈사진 17〉 Krasnodar Tettitou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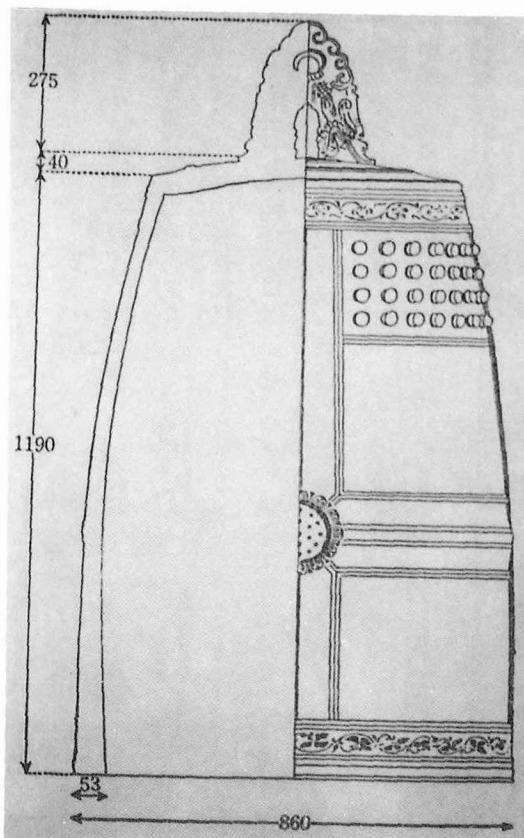
〈사진 18〉 Alexandrop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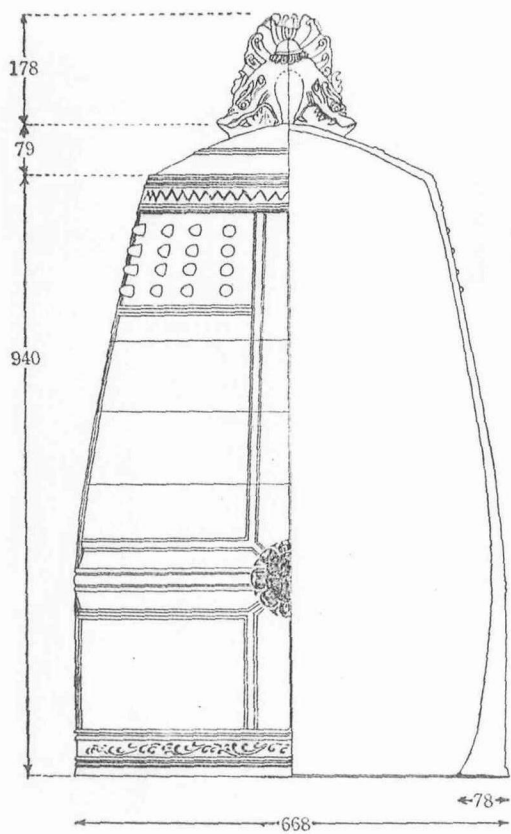
〈사진 19〉 木製鳥



〈사진 20〉 馬足形



〈사진 21〉 妙心寺 종벽



〈사진 22〉 金峰寺 本堂鐘